

제주도민과 소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매거진

2021 가을

VOL. 32

드림제주 21

DREAM JEJU 21



산장구마 山場駒馬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성관악 아래 펼쳐진
중산간 초목 위를 내달리는
말들의 모습이 생동감을 더합니다.

산마장에서 기르던 말을 한데 모아
그 수를 세고 건강을 살피는 말몰이는
힘들고 고되었지만
한해의 결실을 위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수고와 흘린 땀이
값진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도민께 힘이 되는 의정을 펼쳐가겠습니다.

말

김병택

우리 옆에는 항상 말이 있었다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말이었다
말은 공중을 날아다녔다
하늘 아래 거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아무도 말을 제어하지 못했다
공자도 맹자도 말을 제어하는 데는
속수무책이었다
태초의 말과는 아주 달랐다
소통의 아름다운 수단이었지만
사람을 해치는 끔찍한 무기가 되기도 했다

「굴림문학 대표 작품선」(2020)



**“새로운 방역체제로의 점진적 전환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십시오”**



올 설 명절을 맞으며 추석 명절만큼은 일상을 회복해 가족과 친지가 한데 모여 뜻깊고 풍성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여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추석 명절을 맞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의 관광, 문화산업,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여러분이 마주하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비록 많은 가족과 친지가 함께할 수 없지만, 마음만큼은 가족과 이웃과 함께 따뜻함을 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서며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률이 70%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 완료율도 40%를 넘어서며 빠른 접종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디,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제주의 미래가치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태계 보전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과제는 이미 피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산업분야별로 개인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주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들판의 풀은 비바람에 쓰러질지언정 언제고 다시 일어서서 바람에 일렁입니다.

들풀이 그릴 수 있는 것은 대지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제주의 힘을 키운 주인공은 바로 도민 여러분이며, 제주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주인공 역시 도민 여러분입니다.

도민 여러분 속으로 더욱 정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 남 수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CONTENTS

드림제주21

DREAM JEJU 21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행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남수

발행일 2021년(가을호 통권 제32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329

편집인 양기철 사무처장

편집 공보관 오태현, 미디어팀장 양운학, 김형미

디자인·인쇄 모그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064-757-0523



〈드림제주21〉 구독신청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스캔하시면 〈드림제주21〉 구독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드림제주21〉의 정기구독은 홈페이지(www.council.jeu.kr/의정활동/의회간행물/소식지 신청) 또는 전화(064-741-2285)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소식지 드림제주21에 실린 내용물의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기획특집

03 사진과 시 말

04 발간사 새로운 방역체제로의 점진적 전환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십시오

10 기획특집 1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

12 '지방자치 부활 30년' 걸어온 길 가야할 길

18 기획특집 2 민생경제 회생에 방점 둔 활동 약속

20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제주도의회

24 기획특집 3 동네 책방과 주민들이 교감할 수 있는 문화의 현장

28 코로나19 속 '한국환상곡'으로 피날레

30 기획특집 4 2050 탄소중립 시대

34 착한 소비를 넘어 가치 소비는 우리의 책무이다



도의회는 지금

- 38 의정 모니터
- 41 알기 쉬운 생활법률
- 42 연간일정
- 44 의정 칼럼
악취 없는 제주도를 위해
- 46 제주형 관광전략 수립이 필요할 때
- 48 정치도 프로슈머 시대

제주를 느끼다

- 50 문화곳자왈
제주사랑미술관
- 54 노포기행
무식처럼 단단하게
인생 골 깊은 대장간,
원일대장간과 대진농기구
- 58 제주와 환경
욕심은 자연을 위협하는
무서운 천적이다
- 62 현장속으로
“기후위기 극복, 녹색제품 사용에서
시작해 봅시다”
- 64 걸어서 제주 한 바퀴
천년의 섬 비양도
- 70 제주 속 제주
‘심지다방’에서 ‘감성카페심지’까지

제주를 탐하다

- 74 소담만담
서귀포시 도심 속 올레길에
공원도 물도 먹거리도 돈딱 하영,
하영올레
- 80 제주의 사계사미
땅 밑에 툇실하게 살이 차오르는
구을 늪배
- 84 제주어 산책
감저뻬데기광 경운기
- 86 탐라순력도로 읽는 제주
탐라순력도 ‘산장구마’와 만나다
- 88 신(神) 나는 탐라
바람을 타고 흐르는 섬의 기원
- 92 탐나는 탐라
갈옷
- 94 독자설문



지방자치 30년, 특별자치도 출범 15년 그리고 제주가 가야 할 길

올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동시에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지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힘 없이 달려온 도의회와 도정의 지난 시간
그동안의 성과와 부족함을 꼼꼼히 살펴
도민이 바라는 제주,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해
도민과 함께 내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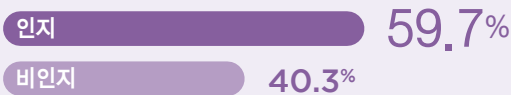
관광산업 육성 가장 큰 성과 ... 향후 중요 분야 일자리 창출·친환경 도시 조성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도민복지 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도민들의 긍·부정 답변이 오차범위 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분야는 '관광산업 육성'을 가장 많이 손꼽은 반면, 특별자치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적 도시의 조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15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케이오피알에이'에 의뢰해 지난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도민 1,010명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Q 2006년 7월부터 제주도의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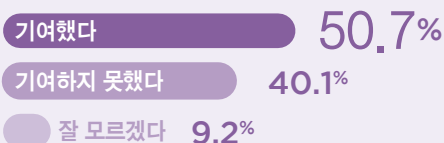


특히, 18~29세 젊은 층과 학생층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지도가 각각 36.6%, 27.6%에 불과해 다른 나이대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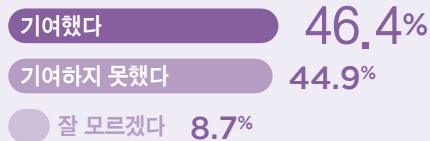
Q 제주특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도민 관심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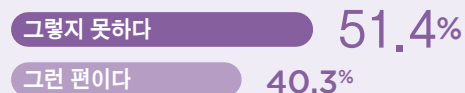
Q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는가?



Q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 복리증진 기여도는?



Q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위상을 제대로 확립해 나가고 있는가?



Q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행정규제의 완화와 국제적 기준 적용 등의 규제 개선에 대한 평가는?



Q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15년간 제주 지역사회의 자치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는?



직업이 주부, 소득 수준이 100~300만원 미만, 제주 거주기간이 25년 미만, 제주특별법 개정 논의에 관심 있다는 집단에서는 '낮다'는 응답과 '높다'는 응답 비율이 오차 범위 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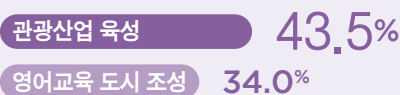
Q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이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가?



Q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는가?



Q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가장 성과가 있었던 분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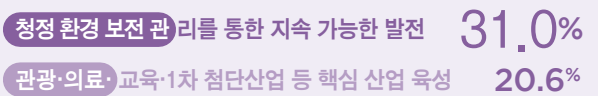
-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서비스 확충 24.8%
-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개선 18.4%
- 친환경도시의 조성 16.0%
- 기업규제 완화 및 투자유치 증대 11.1%
- IT·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 10.2%
- 청정1차산업 육성 9.4%

Q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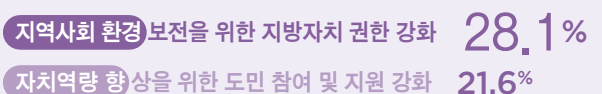
-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개선 28.3%
- 관광산업 육성 26.3%
- 청정1차산업 육성 17.9%
- IT·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 15.8%

Q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 복지서비스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16.4%
-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치안 확보 12.2%

Q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지방자치 권한 강화 18.4%
- 국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의 강화 15.0%
- 지방자치권을 헌법이 보장해주는 헌법적 지위 확보 12.5%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 개요

조사기간 : 2021. 5. 13 ~ 2021. 5. 18(6일간)

조사대상 : 제주도민 1,010명

조사방법 : 유선전화 면접 및 온라인 조사 병행

조사기관 : ㈜케이오피알에이

조사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15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

표본오차 :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응답률 : 14.1%(총 7,152명 중 1,010명 응답 완료)

‘지방자치 부활 30년’ 걸어온 길 가야할 길

글 차철우 기자 (©일요시사)



흔히 지방자치제도(이하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지난 1991년 재출범된 이래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무늬만 존재한다는 비판도 공존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통과됐다.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2.0 시대의 막을 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자치 부활의 주역, 제4대 제주도의회 개원 30년 간의 긴 동면을 깨고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그 역사적인 부활의 주인공인 제4대 도의회 의원들이 개원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1991. 7. 8)

참여 확대 자율성 보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지난해 회기가 만료돼 폐기된 법안이다. 지자체 부활 30주년이라는 시점과 맞물린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관련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주민참여권 보장 및 강화 ▲지자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등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목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이 더욱 보장됐다. 과거에는 조례안을 제정할 경우 단체장에게 제출했지만 법이 수정되면서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다.

주민감사와 소송에 관한 부분도 완화시켰다. 기존 19세 이상 주민만 가능했지만 법률의 변경으로 18세로 하향 조정해 참여요건을 완화, 주민 참여가 더욱 쉬워졌다는 관측도 있다. 그 밖에도 단체장 중심으로 획일화돼있던 기관의 구성을 주민투표를 거쳐 기관구성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법이 수정됐다.

주민들 적극 참여 시스템 마련 지역사회 문제 해결 자체 모색

주민자치기구의 조성은 기존 제도와 차별성과 운영방식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중립성과 주민의 대표기구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민자치기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지자체의 역량 강화도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자치권을 확대해 중앙정부에 쏠린 권한을 분배한다는 방안을 내놔다.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지역의 사무가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인사권과 관련한 사항도 개정됐다. 기존 시·도지사가 소유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권한을 쥐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방의원의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도입 근거도 정립됐다.



제4대 도의회는 도청에서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찾아 지방자치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1993. 10. 13)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특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부단체장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겼다. 전문 인력제도를 통해 보좌 인력을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확보가능하다.

이외에도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해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지자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해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게 변경된 법안의 취지다.

그래도 갈 길 멀다

그러나 현직 도의원들은 인사권과 전문 인력과 관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사권이 직원 수를 지방의원의 재정이나 규모, 인구수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미흡하다고 밝혔다. 인건비를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둔 점은 인사권을 의장에게 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조직의 통제권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 인력의 제공을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공한다는 점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전문 보좌 인력의 확대를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법안을 개정한 데 비해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어 사무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으로 풀이된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법안도 바뀌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 재무 등 지자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법안도 마련됐다.

더불어 미약했던 처벌을 예방하는 등 지방의회의 윤리와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시켰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철저히 하겠다는 게 골자다. 시·군·구의 잘못된 사무 처리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국가에서 명령을 내려 위법한 행정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이 밖에도 지방의원이 겸직을 할 경우 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실효성을 제고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정된 점 의미 있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아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과 행정 능률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법률도 제정됐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 회의가 가능한 법을 제정,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 개최를 제도화했다.

행정구역과 생활 구역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도 수립됐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교통과 환경 분야에서 지역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 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외에도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제도화됐고, 행정구역 결정의 절차가 개선되도록 하는 법안들이 시행 예정이다.

32년 만에 법이 전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지자체의 권한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온다. 지방분권의 가장 큰 핵심은 재정 분권이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완전한 지방분권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율적 독립적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선거와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행정정보 공개,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 민주적 제도의 주민 눈높이 지방행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는 실질적 법치제도 확립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있다. 1992년 기초의회에서 지방자치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보공개법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제공했다.

지방자치의 부활은 사회 질서를 확립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데 있다.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고유 자원이 다른 점을 활용해 각 지역의 개성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정부가 진보, 보수정권을 막론하고 지방분권을 위해 법을 제정해왔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3년 박근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통과에 대한 환영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2006. 2. 9)



해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방분권의 명맥을 이어갔다.

그에 따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시·도의회와 지방공무원의 비리와 기업에 대한 특혜, 중앙정부의 지자체의 자치역량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 등으로 무늬만 자치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주민참여 차원에서 볼 때,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주민투표법 등 직접참여제도가 있지만, 현행 주민 발안제를 더욱 실질화하고, 주민소환제 등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도입 차원인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법안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많은 연구와 실천이 뒤따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지금도 지방자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했으며 부족한 부분은 즉각 반영해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강화된 위상과 권한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의 혁신적 시도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

기사 속 기사

“혼란의 시대” 1991년 전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됐고, 제헌의회는 지방자치법 제정을 논의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즉각적 실시를 주장하는 국회와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실시 시기를 정해 시행하자는 정부의 의견대립으로 지연되다가 1949년 지방자치법이 공포됐다.

이후 정부는 치안유지와 국가의 안정, 국가건설과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의 실시를 연기하다가 1952년 지방의원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를 시행했다. 당시는 지방의원과 달리 지자체장을 통해 초기에 기초간선제와 임명제를 적용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도입기의 지방자치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제약과 한계가 존재했다.

또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중단이라는 기로에 섰다. 군사혁명위원회는 도입기의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판단했다.

선거를 둘러싸고 발생한 파쟁과 민심 분열, 금품매수, 이권청탁, 정실행정, 예산낭비 등의 문제와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 불신임권 남용으로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고, 지방자치의 구현보다는 지역개발의 추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결국 군사혁명위원회는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상급기관장이 대신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됐다.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의 선거 관련 규정이 삭제됐고, 지방의회의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부칙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헌법으로 삼권분립에 근거한 대통령중심제가 채택됨에 따라, 이전의 헌법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 중앙집권체제가 마련된 셈이다. 이후 1972년에 또다시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구성을 보류해, 지방자치의 부활은 1991년이 되기 전까지 불가능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제주도의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도의회는 도민 민생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각종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생에 방점 둔 활동 약속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의회 차원 코로나19 정책 대응

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도록 최종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제4차 대유행 등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민생경제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산업·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감안한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의 정책기조와 정책방향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의회 차원의 정책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28일 구성되었으며, 당초 1년의 기간을 목표로 활동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대유행으로 경제·산업·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가 나타나는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2022년 1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강성민 위원장,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 송영훈 위원, 양병우 위원, 오대익 위원, 한영진 위원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간 특위는 첫 행보인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 특별성명서」 채택을 시작으로,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 상설화 근거 마련,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용어 변경, 골프장 세제 혜택 축소, 학교급식 업체 지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감염병 예방 조례 등 7건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총 9회 개최해, 임업, 관광, 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예방, 제주공동체, 골프산업, 식품기부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담론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와 관련 국회 방문 등 적극적 활동으로 허가가 유보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한 비대면 소비 플랫폼(배달앱) 구축 제언, 제주형 기후위기영향평가제도 도입, 지자체 근로감독관 이양,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촉구 등의 정책제언 또한 활발히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 특수에 따른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노력에 소극적인 골프장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지하수 사용 골프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는 도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했으며, 취약계층 대상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를 위한 특위-JDC-사회복지협의회 간 협약을 계기로 릴레이 쌀 기부가 이어져 기부받은 쌀은 총 13,314kg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연장된 6개월 간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길」 도서 발간,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정책토론회 지속 개최, 포스트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하여, 2022년 1월 최종 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강성민 위원장은 “최근 제주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방역 및 민생경제의 정책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더욱 시급한 시기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의 역할에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된다”면서 “향후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더욱 어려워질 민생경제의 회생에 방점을 둔 특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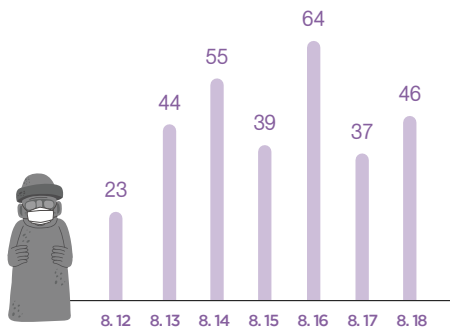
- ①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
- ② 법적정 없는 제주 식품 기부 확산을 위한 협약식
- ③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제주의 생존전략 토론회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제주도의의

글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의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8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7일간 0시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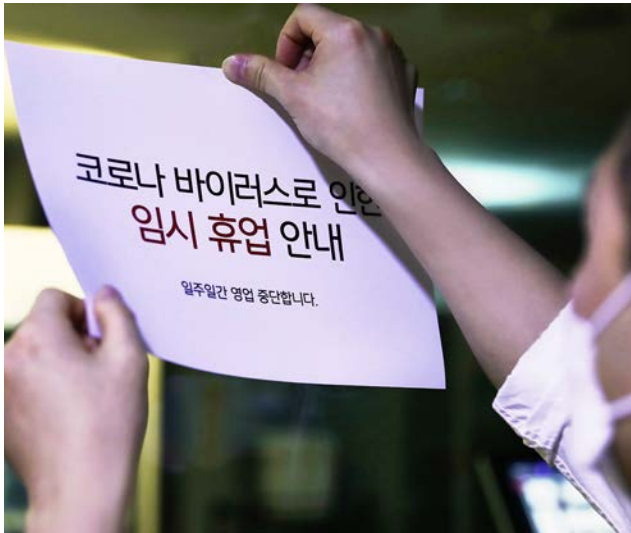
23. 44. 55. 39. 64. 37. 46.

이 숫자들은 지난 8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7일간 0시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이다. 지난해 말까지만큼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불리더니, 어느샌가 두 자리 숫자를 넘어 반백에 가까운 숫자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매일 오전 10시~11시쯤 전날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숫자를 문자로 받아본다. 처음에는 두 자리 숫자만 되어도 가슴이 덜컥하더니, 최근에는 반백에 가까운 숫자를 봐도 그 정도가 덜하다. 이를 보니, 코로나19가 일상이 되었구나 싶다.

생각해본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누군가에게 매일 매일 간곡하게 문자를 받은 적이 있었던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많은 변화들이, 이젠 변화라고 할 것도 없이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는 이 정도의 변화에서 그칠 것인가? 아니다. 코로나19는 현재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를 계속 가져올 것이다. 그렇기에 관건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일 것이다. 변화는 피할 수 없기에, 그 변화를 좀 더 우리에게 이롭게,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변화를 두려워만 할 것은 아닐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함께 만들어 가는 제주공동체, 제주학 공동 정책세미나」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며, 떠올린 것은 병을 치료할 때의 접근법이다. 바로 ‘원인요법’과 ‘대증요법’이다. ‘원인요법’은 ‘어떤 질환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병의 원인에 직접 작용하여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치료법’을 말하며, ‘대증요법’은 ‘어떤 질환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원인이 아닌, 증세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열이 계속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해열제를 투여하는 경우를 ‘대증요법’이라 하며, ‘폐결핵’이라는 열이 나는 원인을 찾아내 폐결핵 약을 처방하여 치료하는 경우를 ‘원인요법’이라 한다. 병의 치료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원인요법이 근본적인 처방으로 확실하고 우선되어야 할 방법이긴 하나, 대증요법 또한 환자의 고통 경감과 증세 완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병의 치료 접근법을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시행된 여러 정책에 대입해보면,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 및 접종,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원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들은 ‘원인요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 완충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 등은 ‘대증요법’으

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의 피해 양상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고통 경감과 증세 완화를 위한 ‘대증요법’은 매우 세심하고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처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0년 7월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출범시켰다. 이는 전국 의회에서 최초로 추진된 것으로 발빠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특위 구성 전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조례, 그리고 도민 및 산업계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친환경농업 우리농산물 무상급식 지원 조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총 15건의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정책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큰 주제 하에 총 10차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 국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철회 건의를 통해 이의 잠정 보류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제주지역 택배노동자와의 정책간담회

여러 활동 중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원인요법’의 하나로, 추진한 조례 개정을 소개하고 싶다. 그것은 현재 ‘기후변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6건의 조례를 인류가 직면한 위험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로 일괄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바이러스는 자연환경 파괴로 인해 서식지가 사라진 야생동물들이 인간과 가까이 살게 되면서 나타났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코로나19 발생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처한 현실을 ‘기후위기’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원인요법’의 하나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처방을 고민해 볼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중요법의 구체화를 위해 거의 모든 일감이 끊긴 공연 및 이벤트업 관계자와의 정책간담회와 오히려 노동이 가중된 택배노동자와의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방역 기준을 강화한 문화행사 개최 및 택배노동자 지원 TF 구성 등을 제안하였으며, 아직은 미흡하나 관련 실태조사 등이 추진되는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병의 증세가 날로 위중한 상태이다. ‘원인요법’과 ‘대증요법’, 어느 하나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시기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멸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찾아 나가는 정책 처방과 함께, 병세가 다양한 만큼 증상마다 세심한 정책 처방이 필요하다. 이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지향하는 종착점이다. 당초 1년의 활동을 계획했으나, 2021년 1월까지 6개월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였다. 오히려 코로나19의 종식으로, 활동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도민을 위해 좋은 일이었으나,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정책지원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다.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어 땀 흘려 일하고, 집에 갈 때 치킨 한 마리라도 살 수 있길 바란다.”는 도민의 목소리가 아직도 마음을 흔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찾아내고 정책화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금 신발 끈을 단단히 맬 것이다. 그것이 전대미문의 신종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제주도의회 of 지금이다. 🍷

동네 책방과 주민들이 교감할 수 있는 문화의 현장

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팀

제주에는 전국에서 동네책방을 가장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제주시에만 동네 책방 61곳이 있습니다.

동네 책방은 우리 제주시의 문화 조직을 이루는 건강한 세포 역할을 합니다.

이 책방들이 생기를 갖고 활동하면서 문화에 활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 여러분께는 대화와 교양의 장소인 문화 살롱이 되고 있으며,

여행객에게는 추억과 사색을 제공하는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2021 문화도시 책방축제 책섬[섬:] 개막 10월까지 제주시 지역 18개 책방서 열려 제주작가회의, 제주4·3 문화도서관 기증

「2021 문화도시 책방축제 책섬[섬:]」이 지난 6월 19일 막을 열었다. 제주시 지역 18개 책방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 ‘사람과 책·마을·숲·음악’ 등과 함께하는 축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구좌읍 지역 책방 3곳(소심한책방, 책악방, 책자국)은 공동기획 프로그램 ‘책방, 종달뿔 빠지다’를 구성해 마을 문화와 역사 등을 지역 주민과 나누고 있다. 이 밖에도 ▲읽고 쓰는 나와 열애 중 ▲애들아, 우리 동네에 뭐가 살까? ▲아무튼 독(讀)하다 ▲2021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등 책방별로 지역과 책방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제주시 어디서든 동네책방 문을 열면 책섬[섬:]을 만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21 문화도시 책방축제 책섬[섬:]은 지난해에 이어 시민들이 힘을 모아 추진단을 구성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제주시는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위원 위촉식을 가졌고, 추진위원은 지역의 문화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와 책방 주인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문화도시 책방축제 책섬[섬:]이 시민이 주도하는 사업만큼 동네책방을 지원하고, 동네책방을 공유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였다.

동네책방이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시민의 주도로 동네책방들이 마을에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 2020년 책섬[섬:] 포스터(2020 제주책방예술제 책섬[섬:])
하. 2021년 책섬[섬:] 포스터(2021 문화도시 책방축제 책섬[섬:])



- ① 그림책방&카페노란우산
- ② 오줌폭탄
- ③ 북스페이스 곰곰
- ④ 카페 동경 앤 책방
- ⑤ 갤러리 책방 섬타임즈



특히 올해는 제주지역 문학인의 관심과 응원도 뜨겁다.
제주작가회의(한국작가회의 제주도지회)가 제주4·3 문학도시
를 기증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제주작가회의(한국작가회의 제주도지회)는 제주지역 곳곳에
등지를 틈 책방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역사와 인
문을 접할 수 있는 마을의 문화사랑방으로 발전함은 물론 제
주4·3의 역사적 진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 확장을 위
해 지난 7월 7일 제주작가회의 사무실이 있는 '제주문학의 집'
에서 제주4·3을 주제로 창작한 문학작품을 엮은 도서 11종(각
20권씩) 220권을 「2021 문화도시 책방축제 책섬[섬:]」 추진
단(고경대, 은종복 공동단장)에 기증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
기도 했다.

기증한 도서들은 책방마다 '제주서가'로 꾸며져 책방을 찾는
손님과 독서가들에게 제주4·3을 문학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책방축제의 의미를 더하게 될 것으로 기대
가 모아지고 있다. 

강덕환 제주작가회의 회장이 제주4·3문학도시를 '2021 문화도시 책방축제 책섬[섬:]' 추
진단에 기증하고 있다.



2021 문화도시 책방축제 책섬[섬:] 참여 책방



한뼘책방 읽는/쓰는 나와 열애 중

보배책방 1. 애들아, 우리 동네에 뭐가 살까? / 2. 지역 독서모임과 함께하는 저자와의 만남

소심한책방 책방, 종달꽃 빠지다

책약방 책방, 종달꽃 빠지다

섬타임즈 섬타임즈는 마을과 열애 중 섬타임즈는 마을과 열애 중

아무튼 책방 아무튼 독(讀) 하다.

책자국 책방, 종달꽃 빠지다

그리고서점 2021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오좁폭탄 오좁폭탄동시책방은 동네삼춘덜이영 열애중(고사리손동시학교)

북스페이스 곰곰 곰곰은 그림책에 빠진 엄마들과 열애 중

헌책방 동림당 1부 '제주 속 우리네 삶의 흔적'전 / 2부 '책 속에 담긴 지은이의 흔적'전

카페동경앤책방 카페동경앤책방은 고전 음악과 열애 중

무명서점 무명서점은 독서모임과 열애 중 - 지역 독서공동체 아카이빙 및 백서 발간

달책방 달책방은 책과 섬타는 중

라이킷 언제나 숲

그림책방&카페노랑우산 그림책방노랑우산은 "엄마의 섬"과 열애중

덜다 책방에서 나를 찾는 시간 (덜다책방 X 인플레닝)

제주살롱 제주살롱은 인문예술과 열애중

책방 소리소문 소리소문은 바이올리니스트랑 열애중



제26회 제주국제관악제

코로나19 속 ‘한국환상곡’으로 피날레

8월 8일부터 15일까지 제주섬 곳곳서 ‘금빛 선율’ 물들여

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팀

제주 전역을 ‘금빛 선율’로 물들인 ‘제26회 제주국제관악제’ 여름시즌이 지난 8월 15일 경축음악회를 끝으로 화려한 막을 내렸다.

이날 경축음악회는 김홍식 지휘로 제주연합관악단이 1968년 미국 관악작곡경연 우승작인 찬스의 ‘한국민요변주곡’ 연주로 시작해 도립제주·서귀포합창단의 ‘한국환상곡’으로 마무리 됐다.

우리나라 유망한 젊은 관악인의 솔리스트 무대도 주목을 받았다. 국내 하모니카 솔리스트 최초로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박종성과 몬트리올 국제콩쿠르 우승자 테너 박승주,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가 경쾌하고 현란한 선율을 선사했다.

뒤이어 부부가수 정미애, 조성환이 치유의 노래를 불렀다.



올해 제주국제관악제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 해외 유명 관악단와 음악인들의 참여가 무산되고 일부 공연이 취소되는 등 다소 아쉬움을 남겼지만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아가는 우리나라의 젊은 관악인들이 무대를 빛냈다.

올해 처음으로 ‘여름시즌’과 ‘겨울시즌’을 도입하면서 변화를 시도한 제주국제관악제는 지난 8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제주아트센터, 제주문예회관, 천지연폭포, 서귀포예술의전당, 예술곳 산양, 사려니숲길 등 제주 곳곳에서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현장 관람이 여의치 않은 도민을 위해 유튜브와 NAVER TV 등을 통해 공연 실황이 안방까지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도민들에게 위안을 안겼다.



올해 제주국제관악제 기간 ‘제16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도 열려 의미를 더했다.

제주국제관악콩쿠르는 트럼펫, 호른, 테너트롬본, 금관5중주 등 4개 부문에 걸쳐 17개국에서 255명(개인부문 210명, 단체부문 45명)이 참여했다.

제16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에서는 4개 부문별 7명씩 총 28명의 심사위원이 비대면 심사를 통해 결선 진출자를 가려냈다. 심사 결과 개인 부문 각 3명과 5중주 부문 3개 팀이 겨울 일정 결선에 진출하게 됐다.

결선 진출자

트럼펫 Lisa Mimura(일본) / 김동민(한국) / 박상현(한국)

호른 권영진(한국) / 염재빈(한국) / 정택찬(한국)

테너 트롬본 Jaroslav Meisner(폴란드) / 김재한(한국)
/ Tim Ouwejan(네덜란드)

금관5중주 코펜하겐 금관5중주(덴마크)
/ Karlbrass Quintet(독일) / NU Brass Quintet(독일)

이번 여름시즌에는 전문관악단 및 앙상블 12개 팀, 군악대 2개 팀, 대학 2개 팀, 합창단 3개 팀, 동호인관악단 7개 팀, 청소년 관악단 8개 팀 등 총 35개 팀 1,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상철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팀 위주로 행사를 열게 돼 아쉬움이 남지만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예술인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남아있는 겨울시즌 관악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는 여름시즌이 끝남과 동시에 다가올 겨울시즌을 준비한다. 겨울 국제관악제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도내 일원을 금빛 선율로 물들인다. 여름은 관악제와 콩쿠르 예선을 치르고, 겨울에는 관악콩쿠르 결선과 작곡콩쿠르 결선, U-13 Band Contest를 연다. 

2050 탄소중립 시대

지구 온난화 막는 에너지 절약 참여가 핵심 과제

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팀



폭우와 태풍, 홍수, 가뭄, 폭염, 초대형 산불, 거기다 혹한까지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발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액 또한 천문학적 규모다.

지구 온도는 2020년대 1도 상승, 2050년대 2~3도 상승, 2080년대 3도 이상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수자원 부족,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 등 앞으로 지구환경은 큰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에 맞먹는 환경보호 활동을 펼쳐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하고 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풍력, 태양력 발전과 같은 청정 에너지 분야에 투자해 오염을 상쇄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로는 에너지, 산업, 폐기물 등을 통해 배출되는 CO₂, 농업 분야의 CH₄, 축산 분야의 N₂O, 냉매인 HFCs, 반도체와 LCD 생산 등으로 인한 PFCs, 유전체와 비금속산화물의 SF₆ 등이다.

이러한 온실가스는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농도가 대폭 증가했는데, 특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문제는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124억 톤), 미국(65억 톤), 인도(28억 톤) 등에 이어 7.1억 톤으로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2050 탄소중립선언은 한국 신기후 체제 출범으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자연발생량 기준 3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70여 개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해 왔고,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60년, 2050년을 목표로 최근 이 대열에 동참했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과제는 이미 피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산업 분야별 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개인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때다.





특히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세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시민들의 긍정 에너지가 확산되며 제로웨이스트(Zero-Waste)와 같은 작은 실천으로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데 기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제로웨이스트(Zero-Wast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뜻깊은 자리 마련되어 눈길을 끈다.

청소년들의 눈으로 글로벌 환경위기를 바라보는 '2021 UN청소년환경총회'가 9월 4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총회로 열렸다. '2021 UN청소년환경총회'는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사)에코맘코리아, 유엔협회세계연맹 (WFUNA)의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올해의 공식 의제는 '기후위기와 제로웨이스트 (Climate Crisis & Zero-Waste)'로 정해졌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2021 UN청소년환경총회는 러시아, 중국, 미국 등 국내외 청소년 및 대학생 330명이 참여한 온라인 총회로 열렸다. UN청소년환경총회 프로그램은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소년의 눈으로 지구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에 따라 모의유엔총회 방식으로 진행하며, 온라인 환경에 맞춰 6개 세부 위원회로 나눠 열렸다.

총회가 열리기 전에 청소년 대표단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이 진행되었는데 캠페인은 'Think Together Act Now'를 슬로건으로 일상 속 생활에서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미션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제로웨이스트를 위한 행동 계획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계획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착한 소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착한 소비'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지는 않았는지, 안정성 확인을 위해 동물 실험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해 해당 사항이 없는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제품의 기획부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윤리적이고 안정적이며, 친환경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대체할 지구는 아직 찾지 못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지구를 지켜나가는 길뿐이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시작일 것이다. 🌱



착한 소비를 넘어 가치 소비는 우리의 책무이다

글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기후의 공격은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매섭게 시작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후 위기의 징후가 지구촌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구 온난화’ 혹은 ‘기후 변화’라는 온건한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지구가 조금 따뜻해지고 있는 차원이 아니다. 지구가 계속해서 가열되고 있고, 지구의 사막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곳곳에서 나타나는 폭우, 폭염, 폭설 등 이상 기후가 그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와는 먼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미국과 호주,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면적이 잿더미로 변하고 있고, 화재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북극에 이어 그린란드까지 녹고 있고, 2050년 안에 북극은 완전히 녹는다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예측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의 젊은 세대, 미래 세대는 정말 속수무책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물론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일찍부터 있어왔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으로, ‘리우환경협약’은 1987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을 결성하여 1990년 기본적 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 6월 리우회담에서 채택되어 1994년 3월 21일부터 공식 발효되었다. 한국도 19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하였다. 협약 가입국의 의무사항은 일반의무사항과 선진국에만 적용되는 특별의무사항으로 구분되었고, 인위적 요인에 의한 탄소배출량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후변화협약 체결국은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감소량을 조사하여 이를 보고해야 하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올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바꿨다.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선진국이면 탄소배출 감소에 대한 책무는 더욱 커지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2018년까지는 탄소배출 감소는커녕 증가추세로 쫓겨져 왔다. 이는 1993년부터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고, 당사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이 구체적인 실행은 불구하고 역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이미 기후약당국 혹은 불량배로 비난받는 처지에 직면해 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결국 2020년 문재인대통령은 미뤄왔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을 재선언하고, 2021년 4월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기존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등을 통폐합하여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장관 등이 모두 당연직으로 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각 부처에서 추진되어 왔던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출범시켰다.

지난 8월 5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공개되었다. 이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한 밑그림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다.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



상을 감축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안)'이 8월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고,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나 '탄소중립기본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입장은 너무 다르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포기했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 산업혁명 이전 시대로 돌아가자는 밀어붙이는 독재 정부라고 비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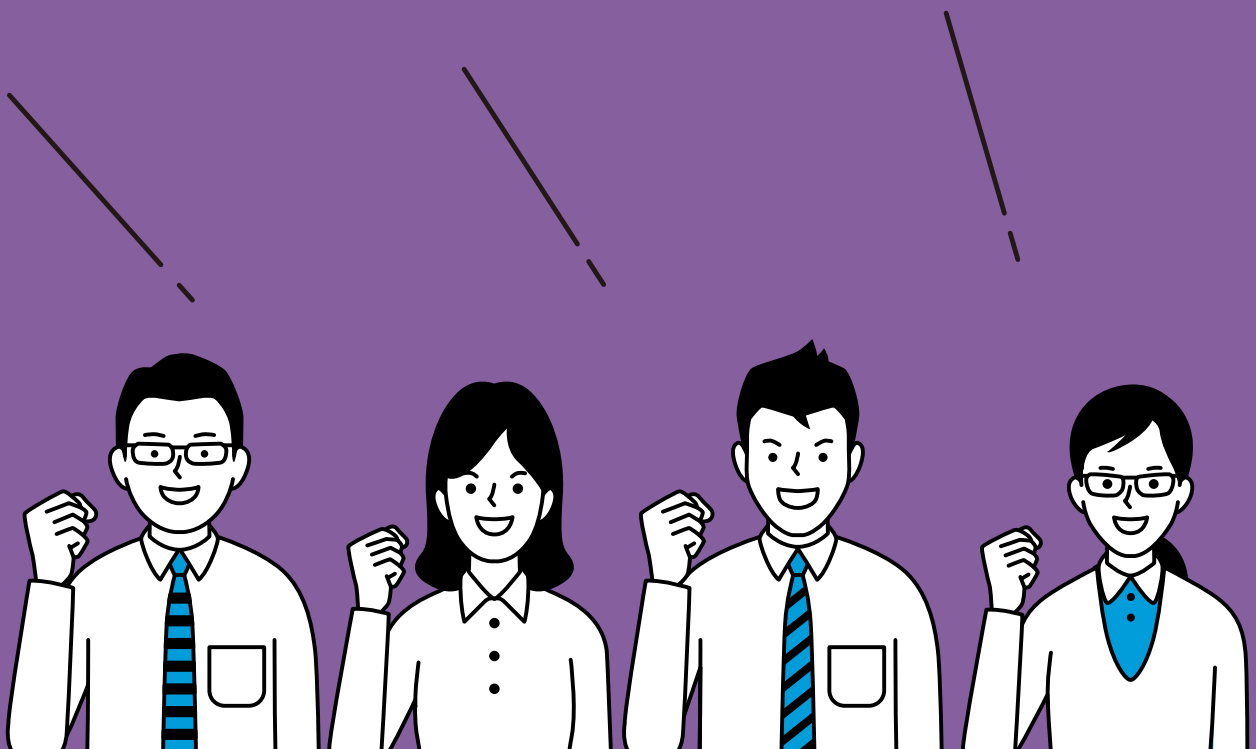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놓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친환경 생산은 단순히 건강차원이거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선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비싼 가격으로 시장에서 외면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제품이 아니라면 국가탄소세에 의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가치소비'는 더 이상 착한 소비가 아니라 소비자의 책무인 시대가 온 것이다.

그리고 덜 쓰고, 덜 버려야 하고, 더 친환경 생산이어야 한다.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옷과 가방, 재활용 종이로 만든 가구, 미생물에 분해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옥수수나 사탕수수, 밀집으로 만드는 제품을 골라 소비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기후 위기의 시대, 사회의 변화는 머리에서 손발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불편을 감수하고, 부담을 나누어 져야 한다. 누구나 필요하다고 생각만 하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더 편리한 세상이나 더 값싼 생산품은 탄소배출 중심의 경제성장이 가져다준 달콤한 독배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탄소배출 제로를 위해 실천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꿈꿀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언제나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도의회는 지금



의정 모니터

알기쉬운 생활법률

연간 일정

의정 칼럼

열린의회 기고



제15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기관부문 ‘종합대상’ 이상봉 의원 ‘최고위원장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좌남수 의장)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기관부문 ‘종합대상’을, 개인부문에서는 이상봉 의원이 ‘최고위원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11대 후반기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민생의정’을 통해 소외된 약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현안 해소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인정되어 ‘종합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권의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과 의정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활동 전개와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선도적·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도 긍정평가를 얻었다.

최고위원장상을 수상하게 된 이상봉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1년 넘게 이끌어 89건의 시정 및 권고 조치를 도출하는 등 ‘외지자본 중심’에서 ‘도민 상생 중심’으로 개발사업 패러다임을 전환시켰으며, 숙의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조례, 주민투표 조례, 조례 제정 및 폐쇄 청구에 관한 조례 제·개정 등 주민자치 실현을 본위에 둔 일관성 있는 의정활동을 추진한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는 시설관리공단 조례 의결 관련 시설공단 Q&A 제작·배포, 새로운 ‘특별자치’ 2단계 완성 기반 마련을 위한 읍면동 자치 강화, 행정구역 개편, 자치분권 현안 토론회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의회 주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TF 운영 단초 마련, 도민의 알권리 보장, 도민주권 실현 등에 대한 의정활동 능력을 인정받았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깊고,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강민숙 위원장, 김대진 부위원장 선임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최종 9명의 위원이 선임되었다. 이번에 구성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제주의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을 위한 정책발굴과 대안 제시, 평화·통일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운영된다. 특별위원회는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에 강민숙(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의원, 부위원장에 김대진(서귀포시 동홍동, 더불어민주당)의원을 선출했으며, 사실상 7월 2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민숙 의원은 “그동안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입지를 다져왔으며, 비타민C 외교라 불리는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 등 평화실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 상징지역으로서 선제적 역할을 해왔다. 이번 특위구성을 통해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의회,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및 토론회 개최, 도민참여운동 개최지원 등 앞으로 남북평화 협력시대를 대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대진 부위원장 또한 “최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21.3.9.)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비정치적·비군사적 분야의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서울, 부산, 경기, 강원 등 타시도 광역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 운영되는 만큼 상호 교류협력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활발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4·3특별위원회, 3차 4·3유적지 현장 답사

관음사 및 이덕구 산전 답사 통해 4·3 의미 상기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7월 28일 3차 4·3유적지 현장 답사를 위해 관음사 및 이덕구 산전을 방문했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현장 답사를 통해 4·3 유적의 보존 상태를 파악하고 관계자 및 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 민주당, 연동율)은 “관음사(제주시 아라동 소재)는 4·3사건 당시 무장대와 토벌대의 교전이 가장 치열했던 장소로, 관음사 주변 5만여 평의 밀림지대에는 무장대와 토벌대의 초소들, 군 숙영지, 피난민들의 주거지 등 당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시대적 상황을 간직한 소중한 문화 자산인 만큼 훼손되지 않도록 복원과 보존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덕구 산전을 방문한 강철남 위원장은 “이덕구 산전은 1948년 말부터 1949년 초까지 수백여 명의 피난민들이 난리를 피해 숨어들어와 곳곳에 거주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그들이 하산한 이후 무장대 사령부인 이덕구 부대가 잠시 주둔하였다고 하여 지금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4·3유적지를 잘 관리하여 후대에 4·3의 가치를 전승하고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4·3특별위원회는 5월부터 10월까지 4·3유적지 현장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





Q.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보험 계약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보험계약자에게 영화티켓 2장을 제공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A.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과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영화티켓이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공해도 괜찮습니다. 

「특별이익의 제공 불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외)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대위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위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일정



2월 제392회 임시회 2.22.(월) ~ 3.4.(목) / 11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3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3월 제393회 임시회 3.17.(수) ~ 3.25.(목) / 9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토·일·요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394회 임시회 4.20.(화) ~ 4.30.(금) / 11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6일 상임위 3일 공휴일 2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395회 임시회 5.28.(금) ~ 6.9.(수) / 13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4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396회 제1차 정례회 6.15.(화) ~ 6.30.(수) / 16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예결위 5일 공휴일 4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397회 임시회 7.14.(수) ~ 7.21.(수) / 8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8~9월 제398회 임시회 8.26.(화) ~ 9.7.(화) / 13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2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399회 임시회 10.12.(화) ~ 11.3.(수) / 23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상임위 15일 공휴일 6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12월 제400회 제2차 정례회 11.15.(월) ~ 12.15.(수) / 31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6일 상임위 8일 예결위 9일 공휴일 8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22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401회 임시회 12.17.(금) ~ 12.23.(목) / 7일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계 10회 - 총142일

의사일정	총137일
본회의 28일 상임위 55일 예결위 22일 공휴일 37일	- 정례회 2회/47일 - 임시회 8회/9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 여러분과의 소통의 장



토론회



제주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집니다.
전문위원실별 소관 업무에 대한 현안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의 활발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인터넷 방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도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개·폐회식, 상임위원회별 회의상황,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생중계 및 녹화중계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 열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교육행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 영상을 회의록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드림제주21 등 소식지 발간



제주의 주요 이슈를 담은 계간 '드림제주21'과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한 월간 '도의회광장'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와 계간지를 무료로 구독할 수 있으며,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도의회 공보관실 064-741-2285

의정자료센터



의정자료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전 행정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각종 정책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서 열람 및 대출, 정책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 문의 :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 064-741-2305

악취 없는 제주도를 위해



글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도민들은 현재 제주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올해 초, '제주 환경 보전을 위한, 도정 정책 방향 도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이 제주 환경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쓰레기, 지하수 오염, 축산 악취 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경도시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주도민들이 걱정하는 환경문제에 공감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하면 도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특히, 저는 지속적으로 축산악취로 인한 갈등 문제가 쉽사리 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만이 제주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의정 활동을 통해 제주도정과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강조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2018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주악취관리센터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주의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센터 설치, 운영 등의 문제는 조직과 인사에 관한 문제라 신중히 접근해야 했고, 도민, 행정 그리고 축산업 종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가, 양돈관계자 및 집행부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무엇보다도 악취관리센터가 지역의 악취저감 및 문제 개선을 위해 악취검사기관, 민원대응, 연구사업 및 컨설팅 등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축산 및 생활환경 분야에 걸친 악취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악취검사기관 추가 지정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로써 악취관리센터가 단순 축산악취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센터가 아닌 보다 폭넓게 악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3년간의 출산 진통의 결과입니다.

제주악취관리센터가 독립적인 조례의 법적 뒷받침을 받아서 좀 더 강화되고 확대 운영됨으로써 제주도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축산악취로부터 생활악취, 하수처리장 악취, 음식물쓰레기 악취 등 모든 악취에 관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을 기대합니다. 악취없는 제주도를 만들어 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제주형 관광전략 수립이 필요할 때



글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관광환경은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화한다. 지금처럼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현상이 주기별로 발생할 것은 어느 누구든지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전 인류적인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광의 이동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는 곧 질병의 전파력도 강력하게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환경변화에도 관광은 너무도 고강도 탄력 산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제주에 맞는 관광전략 수립이 필요할 때이다.

첫째, 지역환경변화에 대응한 관광전략수립이다. 관광분야에서의 지역 환경변화는 관광객인 관광수요, 관광자원인 관광객체, 관광사업자인 관광매체, 공공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광수요는 관광객 수의 변화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들의 욕구와 요구의 변화, 만족도 등을 분석한 정책 반영이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재평가와 환류의 과정이 필요하다.

관광객체는 관광자원의 잠재력에 대한 평가와 개발에 대한 주민의 지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제주에서 많은 갈등을 소지하고 있고 현재 진행형인 사업들이 대부분 이러한 관광자원의 잠재력 평가에 대해서 주민의 지지도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잠재력에 대한 평가는 지역주민만도 아니고 공공부분만의 역할도 아니다.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내어야 공동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관광매체는 관련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관광현상이 이루어지는 공간 내에서 핵심적 역할보다는 보조적 서비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해수욕을 즐기러 해수욕장을 갔을 때 물을 이용한 레저체험보다는 보조적 서비스라 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에서 관광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둘째로 제주도 관광이미지 개선전략이 요구된다. 제주도의 관광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저가 관광상품 운영과 덤핑, 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만족도의 하락은 재방문율 감소와 부정적인 구전을 통한 이미지 추락, 관광지 체류 감소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경쟁력을 갖추고 공정여행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제주에 맞는 관광자원의 공정생태계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 여행업체도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제주도와 유관기관에서 상품개발에 대한 관광홍보, 해설사 지원 등을 확대함으로써 고품질의 관광상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결국, 제주는 환경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자유로운 이동객의 왕래를 막을 수 없으며, 이제는 수요자들에게 책임관광과 공정관광의 시스템을 인지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책임관광은 관광객에게 여행국가의 경제, 환경,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여 관광객의 윤리적 책임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지난 2020 제주포럼에서도 책임관광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제주에 적합한 관광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관광객의 불만에 적극적 대응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나가야 할 때이다. 🍊



정치도 프로슈머 시대



글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프로슈머(prosumer)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인 동시에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1980년 발간한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서 처음 등장했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프로슈머를 통해 소비자가 생산 단계에도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의 반란을 예고했으며, 상품 개발 주체에 대한 전환을 예고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곳곳에서 프로슈머의 사례를 접하게 된다.

특히 LEGO(레고) 회사는 파산 위기를 고객 참여로 극복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사용자들의 제안을 제품에 반영한 것이 좋은 호응을 얻게 돼, 자신의 아이디어를 손쉽게 홈페이지에 가서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수많은 연구 개발자가 된 것이다. 프로슈머의 아이디어로 개발된 제품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출시되기 때문에 고객층까지 확보된 제품으로 소비충도 단단하다. 이처럼 고객들과의 상호 소통과 프로슈머의 창의성을 기업이 받아들이면서 '소비자가 곧 생산의 주체'라는 고객 중심의 변화로 경쟁력을 갖추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전문가에 뒤지지 않으며, 상품 지식과 경험 역시 풍부하다. 제품을 오래 사용한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편한 소비 즐거운 소비 관점에서 제안할 수 있다. 때론 불매운동, 서비스에 대한 평가 등 프로슈머의 영향력도 보여줄 수 있다. 소비자 주권 시대가 된 것이다.

정치도 같다고 본다. 이제 정치도 프로슈머 시대가 도래했다.

스웨덴은 정치가 일상이고 축제이다. 알메달렌의 정치주관은 형식과 격식을 벗어 버리고 소통의 정치 현장으로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정치 박람회이다. 대다수 정당이 참여하며, 4,000개 이상의 세미나가 열리는 정책 학습장이며, 특권을

내려놓은 정치인이 시민과 함께 춤추는 축제이다.

정당은 의제와 정책을 발표하고, 유권자와 시민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책 조정과 과정을 진행한다. 또한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주관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은 미디어를 통해 각 정당의 정책 기회를 부여하는 참여형 정치 축제이다.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치의 의사결정에서 적극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모델인 정치의 프로슈머 제도는 하향식 정치의 모델이다.

우리는 정치를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누군가를 선출하는 과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체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EGO 기업처럼 자신의 아이디어를 손쉽게 홈페이지에 제안하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과정,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상품 출시 등 정치의 프로슈머 시스템이 만들어져 한다.

일상에서 정치가 축제처럼 기분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정치의 프로슈머가 될 수 있도록 정치의 밀접함이 우선되기를 바란다. 🇸🇪



한라산이 출입처였고,
한라산이 전부였습니다.

제주사랑미술관 서재철 관장

글 김형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팀

사진 편집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613번길 46.
 제주사랑미술관이 자리한 곳은 옛 가시초등학교 자리다.
 폐교한 가시초등학교는 사진작가 서재철 관장의
 제주를 담은 작품으로 채워졌다.
 가을을 재촉하듯 비가 내리고 난 8월의 어느 날.
 그곳에서 서재철 관장을 만났다.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 그리고 지금의 제주를
 바라보는 마음이 궁금합니다.**

처음 제주신문에서 수습기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처음이었지만 출입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출입처가 '한라산'이었습니다. 전국 기자 중에 가장 넓은 출입처를 가진 수습기자였습니다. 당시 한라산이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노력이 있을 당시여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관장님의 수습기자 생활이 궁금합니다.

한라산 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임했습니다. 당시 산악 활동도 활발하게 할 당시여서, 산악회원 활동뿐만 아니라 한라산의 쓰레기 정화, 등산로 보수 등을 집중적으로 취재 보도했습니다. 그 무렵 우리나라에서 자연보호 운동이 활발하게 논의될 당시여서 한라산을 다니면서 파괴 현장, 도채 현장을 계속 신문에 실었습니다. 수습 생활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한라산에 대해 취재를 했고, 한라산 구석구석을 다니며, 파괴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기억나는 보도가 있으시다면요.

신제주라는 도시가 만들어질 당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주택을 지으며, 정원 가꾸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한라산의 희귀 수종, 그러니 나무 구상나무, 주목 등을 도채하기도 했는데, 그건 문제였습니다. 사회면 메인 기사가 됐죠. 자연보전에 대한 사진과 기사를 지속적으로 취재하면서 중앙지에도 함께 실리기도 했습니다. 기자로서 신바람이 났습니다. 점차 한라산에 더욱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라산 파괴 현장을 집중 취재했고, 그러면서 제주도 곳곳의 자연 파괴 현장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1979년 한국기자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를 위해 자료를 올려 보냈는데, 근거자료가 한 보따리였습니다. 모두 한라산 자연 파괴 현장 집중취재 보도였기 때문입니다. 기자 생활 내내 한라산이 출입처였고, 한라산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기자의 역할을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위해 사라오름에 갔는데, 호수 가운데로 쇠말뚝을 박고 있었습니다. 사라오름은 제주인에게 제1명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라



산의 모든 시설은 들어서기 전에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수 저쪽 관람을 위한 데크시설이라고 하길래 기존의 오솔길 정비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찍어 각 언론사에 보냈으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한라산 자연은 언론이 지키지 않으면 파괴된다.’ 이런 생각을 하며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해에는 5·16 도로변의 나무를 자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물었더니, 수종 갱신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삼나무로 대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를 썼고, 당시 몇몇 교수진이 조사차 제주를 찾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론이 형성되어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5·16도로 확장을 위해 수종 갱신 계획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숲 터널은 그런 이유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보존이 이뤄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기자가 일에 대한 보람을 갖는 것은 ‘기자의 역할’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라산 노루 문제는 논의가 여러 가지입니다.

한라산에 노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얀 눈이 쌓인 뒷세오름 부근에서 노루 두 마리가 뛰어노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던 노루가 남아있구나’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MBC와 함께 노루 보호 캠페인을 펼친 기억이 납니다. 노루 사진전을 제주와 서울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노루가 이렇게 귀여운 줄 알았으면, 사냥하지 말걸’하는 사람들의 얘기

도 들었습니다. 밀렵 단속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노루가 농작물 피해를 준다는 지역민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노루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얘기했습니다.

“제주도가 청정지역으로서 최소한 숨 쉬고 돌아다니는 동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노루가 전국적으로 멸종 위기인데, 제주에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현재 인간이 쓰는 땅의 원래 주인도 사실은 동물입니다. 비록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도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있기는 하지만, 동물을 없애자고는 하지 않습니다.”

당시,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손해를 보는 농민 여러분의 상황은 마음 아프지만,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은 없습니다.

인도에 ‘두루미 마을’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몽골 벌판에서 부화한 두루미가 히말라야산맥을 넘어옵니다. 인도에서 머물다가 다시 넘어가는데, 히말라야산맥을 넘을 때는 제트기류에 의해 넘어옵니다. 힘이 빠진 아이들은 그냥 떨어집니다. 그 아이들에게 마을 주민들이 먹이를 주었는데, 그러고 나니 매해 마을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마을이 관광지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주가 제주라는 독특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생태에 대한 이러한 넓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활동이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랑쉬 ©서재철

사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진 기자입니다. 사진의 원래 목적은 '기록'입니다. 사진으로 남긴 기록은 거짓이 없습니다. 사진 자체도 사실을 진실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주의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포구의 옛 모습, 해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고무뚝이 나오기 전에 해녀분들이 입었던 해녀복도 역사고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기사를 마감하고 나면, 버스를 타고 달려가서 사진으로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주만이 가진 기록, 독특한 삶의 얘기, 이러한 것을 기록자의 입장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2019년 제주사랑미술관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주에 없었습니다. 오지 여행을 좋아해서 라오스와 미얀마를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화재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기 전 마침 가지고 있던 흑백 사진 필름, 각종 메모 이런 것들을 그 방에 모아두었습니다. 메모를 한 이유는 누구라도 찾아볼 수 있게끔 해놓았었는데,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자 생활을 그만두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1997년 1월 내몽골 오르도스 초원에 갔었습니다. 한참 촬영

하다가 눈보라가 치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해야 하나, 내 촬영 작업은 어느 정도인가, 신문사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용기를 얻었습니다. 귀국하며 가족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시는 아이들도 어릴 때였는데 아내가 "그동안 오래 다녔으니까, 그만둬주세요"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해의 신문사 창간호를 마감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백두산으로 가서 한 달을 살고 돌아왔습니다. 평생 제주에서 살아온 나를 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작은딸이 백두산으로 떠나는 제게 편지를 주며 백두산에 가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정신없이 지내다 문득 그 편지를 꺼내 보았는데, "자연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아버지, 만세!" 이렇게 쓰여있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생이었던 딸은 지금 마흔이 다 되어가고, 월간지 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때에 제주의 역사를 사진으로 풀어낸 언론인이자 작가의 일생이 제주사랑미술관에 전시된 사진과 겹치면서 아련하게 다가왔다. 사람은 참으로 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 두 사람이 모여 우리가 되는 것. 우리가 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든든함. 가을엔 사람들이 만드는 든든함으로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겠다. 🍂

무쇠처럼 단단하게 인생 골 깊은 대장간,

원일대장간과 대진농기구

글 / 사진 편집부

“땅 땅 땅 따 당 땅 땅 땅 따 당...”

매월 4일과 9일이 있는 날에 열리는 한림오일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종소리처럼 쇠메질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소리를 밟으며 따라가다 보면, 시장 골목 끝에 두 대장간이 나란히 어깨를 맞대어 있다. ‘원일대장간’과 ‘대진농기구’가 바로 그곳이다. 대장간, 오래전에 농촌을 떠나 도시 생활을 한 이들에게는 기억의 한쪽 모퉁이에 박힌 아련한 추억일 테고, 젊은이들에게는 조선 화가 김홍도의 풍속화 ‘대장간’이 신기하게 재현된 모습일 테지만, 아직도 이곳은 농업과 물질을 생계로 이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들의 생활 가게이다. 기계화된 공장에서 쏟아내는 값싼 연장 속에서도, 시대 무게의 휩쓸림 없이, 무쇠처럼 단단하게 버텨온 대장장이가 오늘도 그곳에서 묵직하게 쇠메질을 하고 있다.

“땅땅땅 따당 땅땅땅 따당...”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취재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일대장간

원일대장간은 2006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故 이원일 씨가 50여 년 동안 대장장으로 운영했던 대장간을 이승태 씨가 20년째 이어나가고 있는 곳이다. 명문대 진학을 위해 올라간 서울에서 그는 졸업 후 교직에 있었으며, 손을 댄 사업이 3번이나 부도를 맞는 좌절을 겪었다.

그때 잠시 쉬려고 고향 제주로 향한 그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대장장이의 길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쁜 아버지의 대장간 일을 도우며 대장장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반대하는 아버지의 마음 표현인지, 제주도 아버지의 무뚝뚝함인지, 그의 아버지는 대장장이의 기술을 그에게 직접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옆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일하는 모습들이 많은 잔상으로 기억에 남아있었다. 기억으로 보관되었던 아버지의 잔상에 의존하여, 그는 쇧덩어리를 요리조리 뒤집어가며 계속되는 쇠메질 속에서 스스로 대장장이의 기술을 연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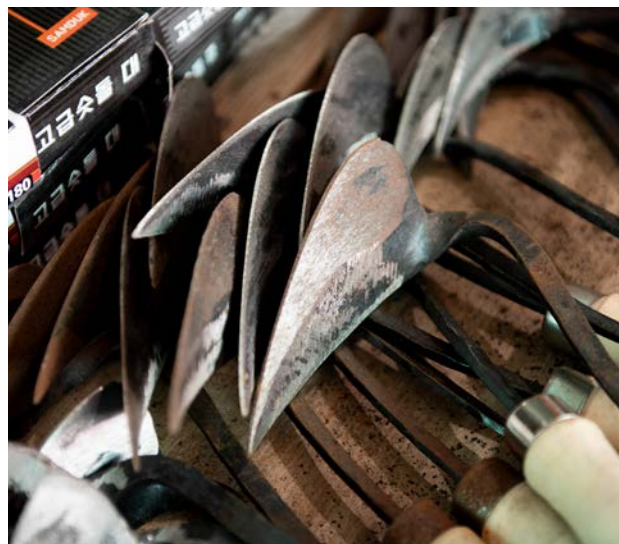
그의 고된 힘이 동력이 되어 돌아가는 원일대장간이지만, 이곳이 그에게 주는 일상의 즐거움은 장에 나온 할머니들과 소소하게 나누는 담소이다. “제주 할머니랑 얘기를 나누다보면, 그분들의 순수함과 꾸밈없는 순박함이 너무 좋아요”라며 그는 그들의 손자처럼 미소 짓는다.

이승태 씨가 가장 많이 만들고 공을 들이는 도구는 제주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주의 호미, ‘골갱이’이다. 농기구 중에서 가장 작으면서도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골갱이는 다

같은 모양으로 보이지만, 대장장이의 힘과 공 그리고 기술에 따라 미세하게 각각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는 이제는 어느 쪽을 더 두드리면, 물건이 어떻게 더 예뻐지고, 날렵해지는지를 안다. 그래도 아직 그가 고민하는 문제는 도구의 편리성이다. 어떻게 만들어야 사용자가 힘을 덜 들일까?

그는 그가 만든 물건에 대해 동네 이웃들에게 손님들에게 끊임없이 칭찬받고 싶어 한다. 어쩌면, 이승태 씨가 만든 골갱이가 부지런한 할머니의 마음보다 느려진 할머니 손에서, 힘에 부친 할머니의 농사일을, 물질을 쉴 새 없이 도와야 할지도 모른다.

원일대장간에서 만들고 있는 제주호미(골갱이)





원일대장간 이승태 대장장이

“아직도 제가 만든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작지만, 충분히 가치가 되는 일이지요.”

수공업은 만든 자의 손에서 사용자의 손으로, 물건의 가치 온도가 직접 전도되는 친밀감을 지니고 있다. 이 친밀한 가치의 공유를 그는 자기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붉은 불꽃을 튀며 버리는 그의 날이 어찌 무딜 수가 있을까!

대진농기구

대진농기구는 장인의 무대와 객석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 무대에는 불과 물 그리고, 땀이 있다. 섭씨 1,500도가 넘는 화덕

에서 불이 연신 활활 타오르고 있고, 한쪽 구석 돌 돛도고리(돼지 먹이통)를 닦은 돌 통 안에는 담금질에 필요한 물이 가득 담겨있다. 시멘트 바닥 구석에는 석탄이 무더진 석탑처럼 질서 없이 쌓여있다.

그 배경 속에서, 팔순 나이를 곧 넘게 되는 대장장이가 모루(받침으로 쓰는 쇠덩이) 위에 놓인 벌겋게 달아오른 쇠날을 향해, 온 체중을 실어 쇠메질을 한다. 맨손으로 시뻘건 쇠 날에 “땅! 땅! 땅!” 작은 불꽃을 튀며 쇠메질을 내려치고, 또 내려치다가 찬물에 식히길 여러 차례 반복한 끝에, 불품없이 무뎠던 날은 어느새 빛나는 날렵한 날을 세우게 된다. 맞은편에 놓인 긴 나무 벤치에는 아낙네들이 말 없이 엉덩이를 대고 앉아 대장장이의 작업을 지켜본다. 자신이 맡긴 낡은 물건의 새로운 탄생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장을 보러 잠시 자리를 뜰 수도 있겠지만,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생생하기도 하고, 어떤 클래식 공연 못지않게 경건하기도 하다.

대진농기구는 대장간의 옛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전통방식 그대로 쇠를 다듬어 매질(쇠를 두드려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과 담금질(쇠를 높은 열에서 굵고 식히는 작업) 등을 통해 무딘 농기구의 날을 버리기도 하고, 새롭게 생산하기도 한다. 이 대장간에서 아버지의 1대 조여길 씨에 이어, 2대 조대옥 씨가 대장장이의 업을 평생 묵묵히 이어나가고 있다. 이 곳은 1대 조여길 씨와 2대의 조대옥 씨의 경력을 합치면 12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사는 곳이다. 장에 나온 손님들이





위 / 조대옥 대장장이의 작업을 지켜보는 손님들의 모습
아래 / 대진농기구 조대옥 대장장이

상세하게 요구할 때마다, 말수가 적은 그의 약간 흰 등은 호미처럼 그들을 향해 더 휘어진다. 그들의 요구에 경청하는 것이다. 대장장이의 정직한 힘에 눌러, 세심한 손길로 연마된 갖가지 모양의 골갱이와 호맹이, 낫 등의 작은 농기구의 날의 빛은 그 올린 대장간 구석을 비추고 있다. 이 장인의 맥은 언제까지 그 곳을 비추어 줄 수 있을까? 이제까지 그곳에서 흐른 시간이 다시 그곳의 미래가 되길 바란다.

나도 김광규 시인의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시처럼, 살다가 자신이 쓸모없고 하찮게 느껴질 때면, 무더진 나를 데리고 이곳 대장간으로 올 것이다. 대장간 한편에 벤치 옆 작은 나무 의자가 나의 객석이 있으면 한다. 그곳이 만석이면 골목 어귀로 이어지는 양철 창문 너머로 쇠메질하는 그의 흰 등과 무쇠 같은 단단한 그의 맨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가도 좋을 것이다. 그때에도 그의 쇠메질의 소리가 내 걸음 앞에 먼저 마중 나와 주길 바라고, 내 걸음 뒤로 배웅해주길 바란다. 

대장간의 유혹

- 김광규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아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내리는
퐁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욕심은 자연을 위협하는 무서운 천적*이다

글 / 사진 김 완 병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이 학 박 사

*천적(天敵, Natural Enemy): 먹이사슬 생태계에서 먹잇감으로 희생되는 생물에 상대하여 잡아먹는 생물을 말한다. 인간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천적이다.

선홍 꽃자왈에 들어서면, 맨 먼저 반기는 친구가 동백나무입니다.
밤새 철쭉 같은 공간에 갇혀 있다가, 새들의 노랫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앞에서 윤기가 흐르고, 바람 따라 춤도 춥니다.
비와 눈 그리고 바람 덕분에 사시사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며,
동박새와 직박구리의 도움으로 열매도 맺고 후손들을 멀리
여행도 보냅니다. 장마철엔 흠뻑 비를 맞으며 맹공이들의
합창에 박수를 칩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지치지 않고 행복
합니다. 천적으로 인한 불행과 스트레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동백기름을 비롯하여
목재용, 관상용으로 유용한 자원이 되어 줍니다.



천연기념물 제204호로 지정된 팔색조는 주로 지렁이를 잡아먹는다. ©김기삼



꽃자왈에 자생하는 동백나무는 동백새에게 꿀을 제공하며,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자원이다.

어느 날부터 내리쬐는 햇빛에 꽤나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디로 피신할 수가 없습니다. 씨앗 발아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식물은 빛, 물, 이산화탄소, 흙 등 무생물 요인과 벌, 새, 곰팡이 등 생물 요인의 지원을 받아온 터라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실 동백나무뿐만 아니라 숲속 식물은 더위, 가뭄, 강풍, 폭우, 침수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와 야생동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견딜 만했었는데, 사람들이 벌려놓은 밥상차림 탓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식물은 조기개화와 조기낙엽 등 생리적, 형태적 변화를 유도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을 펴니다.

제주왕벚나무의 개화시기가 4월 초에서 3월 말로 앞당겨졌듯이, 숲에 의존하는 다른 생명체도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동백나무 숲 아래에서 먹이를 찾던 팔색조가 바짝 긴장합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입안에 지렁이를 가득 물고 있습니다. 천적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둥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팔색조는 주변 환경과 거의 흡사하게 둥지를 은폐하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둥지를 보고도 이게 둥지인가 할 정도입니다, 연구자가 새끼들에게 지렁이를 전달하는 어미

의 장면을 잡으려다, 다른 천적에게 들키면 정말 큰 일입니다. 그래서 새를 연구하거나 촬영하다 보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족제비와 큰부리까마귀는 둥지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팔색조의 움직임을 추적하기보다 사람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둥지가 노출되면 새들은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식물이 조기개화를 하듯이 새들도 둥지에서 일찍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어미는 압니다. 둥지에 머무를수록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어치나 까치도 노려봅니다. 어미의 신호로 둥지에서 나온 새끼들은 숲속 바닥을 뒤통거리며 낙엽에 몸을 숨깁니다. 다행히 어미와 다르게 새끼의 깃털 색은 어둡고 칙칙합니다. 천적의 눈을 따돌리기 위해 선택한 진화입니다. 아뵘싸, 이번엔 쇠살모사가 팔색조 새끼들을 노립니다.

선홍꽃자왈은 쇠살모사, 누룩뱀, 유혈목이가 상주하는 곳입니다. 뱀들은 이사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팔색조는 바위나 땅 위 또는 큰 나무 위에서 둥지를 틀기 때문에, 언제나 뱀들의 표적입니다. 특히 누룩뱀은 칩이 나무 타고 올라가듯 나무타기의 명수로 둥지 속의 알과 새끼를 삼켜버립니다. 팔색조를



①

비롯하여 직박구리, 동박새, 호랑지빠귀, 흰배지빠귀 등이 희생 당하기 일쑤입니다. 쇠살모사는 제주도롱뇽과 제주등줄쥐까지 포식할 정도로, 민첩하지 못한 어린 팔색조는 순식간에 독사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주로 습지에서 참개구리나 산개구리를 노리던 유혈목이는 왜가리한테 포식당하기도 합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뱀이나 황소개구리들을 잡는 왜가리도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실 왜가리는 육중하고 날카로운 부리를 보면, 어떤 천적이라도 감히 덤벼들지 못합니다. 간혹 부상당한 왜가리를 구조하거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기도 합니다. 왜가리는 굴자왈 습지를 비롯하여 연못, 해안조간대에서 먹이활동을 하며, 제주에서는 육지부처럼 큰 무리를 이루어 집단 번식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왜가리가 지난 2013년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1쌍이 제주도에 서 첫 번식에 성공한 이래, 2020년과 2021년에 제주시 별도 봉에서 각각 한 쌍과 두 쌍이 번식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 천읍 다려도에서 왜가리가 집단으로 번식하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백로류의 집단 번식은 천적 경계와 먹이확보에 유리하지만, 간혹 천적이나 악천후에 의해 새끼들이 희생되기도 합니다.

왜가리의 번식과정을 조사하다가, 둥지 속의 왜가리 새끼 한 마리가 큰부리까마귀에게 낚아채였습니다. 필자를 포함한 연구자들이 조사할 때, 둥지의 왜가리들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깜새를 보고 멀리서 지켜보던 큰부리까마귀가 다려도까지 날아오지 않았을까. 날개도 퍼지 못하는 어린 새끼를 무참히 포식하는 모습에 죄인 같은 모습이 듭니다.

멀리 제주도까지 들어온 까치는 매에게 포식당합니다. 까치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섬으로 와서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낮선 땅에서 모진 조건을 이겨내니까, 이제는 자연 천적보다는 사람으로부터도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도내 저수지나 연못에 사는 붉은귀거북도 황소개구리도 생태계 교란종이라 해서 사람들에게 찬밥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는 천연기념물이고 멸종위기종이라 대접받고, 누구는 생태계교란종이니 유해종이니 해충이니 하며 푸대접합니다. 비록 외래종일지라도 인정사정없이 죽여야 한다는 생명무시를 정당화해서는 곤란합니다.



②



③

자연계의 천적은 생태계의 흐름이지만, 사람이 개입한 살생은 막을 수 있는 참사입니다. 동백나무가 화를 내는 것도, 팔색조가 서두르는 것도, 왜가리가 희생당한 것도, 까치와 붉은귀거북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도 무서운 천적의 무리한 접근 때문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뉴딜, 에코마켓팅, 녹색인증 등 그럴듯하게 자연을 달래고 있을 때, 수많은 생물들이 더 나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주도는 지구의 생태계를 가늠하는 축소판이며, 육식꾸러기들이 섬에 구멍을 내기 시작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입니다.

천적이 없는 것보다 있어야 더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지만, 숲과 야생동물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똑똑한 천적이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 🍷

- ① 수월봉 절벽에서 매가 까치를 낚아채고 있다. ©김기삼
- ② 큰부리까마귀가 둥지 속에서 어미를 기다리는 새끼를 노리고 있다. ©김기삼
- ③ 쇠살모사가 한경면 저지곶자왓에서 제주등줄쥐를 포식하고 있다.
- ④ 왜래종인 붉은귀거북은 도내 저수지와 연못에서 토종 생물종을 잡아먹는 생태계교란종이다.

④





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기후위기 극복, 녹색제품 사용에서 시작해 봅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8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 의결됐다.

본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기관과의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교류,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와 연계한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제품은 사용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소비자로서도 녹색제품 구매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향후 다각적인 홍보가 이뤄진다면 기후위기 의제로도 가치가 높다.

“최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커지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과 관련한 운동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한영진 의원은 6월 28일 TBN교통방송을 찾아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제품 제조에서부터 폐기단계까지 인체에 안전한지, 유해 물질이 저감되었는지, 재활용은 가능한지 고려해야 한다”며, “녹색제품들의 구매를 촉진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고 녹색구매지원센터와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



는 것은 물론 청소년과 학부모 지도자 양성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녹색제품은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영향도 최소화하며 환경을 복원하는 비용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경우를 언급하며 “제주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판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도 의무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점포들 가운데 환경부 기준에 맞는 녹색 매장도 여섯 곳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제주의 지속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도민사회가 녹색제품을 발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영진 의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마음과 행동을 모으는 작은 실천을 강조했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삼양동 주말장터가 열립니다. 주말장터에 오시는 분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드리기 시작하니, 언제부터인가 일회용 비닐봉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의 기록

비양도는 제주도 서쪽에 있는 작은 화산섬으로 한림읍 협재리에 속해 있다. 협재해수욕장에 가면 바로라도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는 섬이지만, 선뜻 발길을 내딛지 못하는 섬 속의 섬이다.

비양도의 면적은 0.5km²이고 둥근 모양의 해안선 길이는 3.5km로 천천히 걸어도 한 시간이면 충분히 섬을 완주할 수 있다. 섬 중앙에 있는 높이 114m의 비양봉을 오르는 것까지 넉넉히 2~3시간이면 섬을 둘러볼 수 있다. 본섬의 한림항과 비양도를 왕복하는 정기여객선은 2편으로 각각 하루 4번씩 왕복하는데, 한림항에서 표를 살 때 왕복승선권을 구매하면 된다.

한림항에서 약 5km 떨어진 비양도까지는 배로 약 15분이면 닿을 수 있다. 배가 비양도항 압개포구에 닿아 배에서 내려서자, 가장 먼저 승객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비양도 문화해설사이다. 친절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방문객을 맞으며, 비양도 탐방에 대한 이모저모 정보를 알려주었다. 끝으로 순비기나무를 찾아 그 향을 맡아보라는 말과 함께 '비양도 지질트레일'이라 적힌 안내책자를 나눠주었다.

둥근 형태의 섬이니 왼쪽으로 돌든 오른쪽으로 돌든 마찬가지라는 해설사의 안내가 있었지만, 안내책자에 나온 순서를 따라 걸기로 하고 섬의 왼쪽을 향해 탐방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림항에서 배를 타고 15분 정도면 비양도에 도착한다.

불과 몇 걸음 가지 않아 ‘비양도 천년기념비(飛揚島千年紀念碑)’를 만나게 되는데, 비양도에 대한 두 개의 역사적 기록이 새겨져 있었다. 그중 하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1002년(고려 목종 5년) 6월에 산이 바다 한가운데서 솟았다’는 기록이다. 이를 근거로 비양도의 생성 연도를 1002년으로 보고 지난 2002년 7월에 ‘비양도 탄생 1000년 기념비’를 세웠다. 이로써 비양도가 ‘천년의 섬’이 된 것이다.

또 다른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고적’에 ‘1007년(고려 목종 10년), 서산이 바다 가운데서 솟아오르니 태학박사 전공지를 보내어 살피게 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이 처음 솟아오를 때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땅이 천둥처럼 진동하였는데 일주일이나 지나

서야 비로소 멈추었다. 산 높이가 100여 장이고 둘레는 40여 리나 되었다. 풀과 나무가 없었고, 연기가 그 위를 덮었는데 마치 석류황 같이 보였다.

사람들이 두려워 감히 가까이 가려 하지 않자 공지가 몸소 산 아래까지 가 그 형상을 그려서 바쳤다’는 내용이다.

문헌의 기록대로라면 비양도는 1002년, 1007년 두 번의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섬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역사적 화산활동 기록을 가진 국토의 막내 섬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의 지질학적 검증을 통해 용암의 나이를 분석한 결과 27,0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조사돼 과학적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그렇다고 굳이 과학적 근거만 내세우기보다는 우리에게 과학 이상의 공감을 일으키는 그 무엇인가가 있음도 유념했으면 좋겠다.

화산학의 보고

기념비 옆으로는 배우 고현정 주연의 2005년 SBS 드라마 ‘봄날’의 촬영지였음을 알리는 영화필름 모양의 홍보구조물이 시골마을 포구의 풍경과 겹쳐지며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다.

안내책자대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비양도 볼거리 중 하나가 ‘파호이호이 용암’ 해변이고 그다음에 ‘아아 용암’이다. 너무 낮선 용어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바람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열린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 찬스를 이용했다.



두 용어 모두 하와이 토착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용암이 흘러나올 때의 온도, 점성, 유속 등의 차이와 지표면의 경사도에 의해 크게 ‘파호이호이 용암’과 ‘아아 용암’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용암이 묽으면 멀리까지 흐르고 표면이 반들거리는 넓은 모양을 만드는데 이것이 ‘파호이호이 용암’이고, 상대적으로 끈적거리고 점성이 높은 용암은 멀리까지 흐르지 못하고 식을 때 표면이 깨지면서 날카롭고 뾰족해지는데 이것을 ‘아아 용암’이라고 부른다. 구분하기 쉽게 뾰족하고 아프면 ‘아아’라고 기억해두면 좋겠다 싶었다.

제주도 본섬에서도 이 두 가지 용암 지형을 모두 볼 수 있는데, 아아 용암의 대표적인 예가 용두암 일대이고 파호이호이 용암 지형으로는 우도와 마라도가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 비양도를 가리켜 제주도의 축소판이라도 하는데, 갖가지 용암 지형을 모두 갖추고, 가운데 한라산처럼 비양봉이 솟은 모습이 영락없이 제주도를 빼닮았다.

용암 해변을 지나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영어 붙은 용암(스페터총)’이다. 또 다른 화산 용어에 이번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다. 안내판의 내용대로 분화구에서 분수처럼 솟구쳐 나온 용암이 소뿔처럼 영어 붙은 것을 스페터총이라고 한단다. 그리고 비양봉의 내부도 이처럼 생겼다는 설명이다.

비양도의 해변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고구마처럼 타원형의 둥글둥글한 돌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화산탄이다. 화산탄은 제주도에서도 비양도에서만 볼 수 있는데, 작은 것은 몇십 밀리미터에서 가장 큰 것은 직경이 5m에 이르고 무게는 10톤이나 된다고 한다.

초대형 화산탄 앞을 지키고 서 있는 바위가 코끼리바위이다. 바다 한가운데 코를 담그고 있는 코끼리 모양의 바위는 지금은 사라진 비양봉의 또 다른 분화구가 파도에 침식되어 코끼리 형태로 남아 있다고 한다. 썰물 때에는 걸어서 코끼리바위까지 가 볼 수도 있고, 물이 들어올 때면 코끼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 코를 물에 담그고 있는 형상을 마주하게 된다.



코끼리바위

코끼리바위를 지나 비양도의 다양한 화산 암석들이 늘어선 암석 소공원을 지나면 해변에 특이한 모양으로 우뚝 솟은 돌기둥이 나타나는데 천연기념물 제439호 ‘용암굴뚝(애기 엷은 돌)’이다. 이 돌기둥은 ‘빵 굽는 화덕’을 뜻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다는 ‘호니토(hornito)’라 부르는 소규모 화산체로 용암이 습지를 지날 때 뜨거운 용암 열로 인해 물이 끓어 수증기로 변하면서 용암과 함께 솟구쳐 만들어진 것이다. 내부가 굴뚝처럼 비어 있어 ‘용암굴뚝구조’라고 하며 화산섬 제주도에서도 오직 이곳 비양도에서만 관찰된다고 한다.

호니토는 세월의 흔적으로 풍화되고 훼손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 중 유일하게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호니토가 높이 4.5m, 직경 1.5m로 애기 엷은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애기 엷은 돌’로 불리는 이 바위다. 애기를 엷은 한 여인이 해변에서 바다에 나간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전설이 깃든 이 돌 앞에서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다.



용암굴뚝(애기엷은 돌)



좌 / 비양도 등대, 우 / 비양봉 정상에서 본 애월읍, 한림읍

비양봉 정상으로 이어진 테크 계단의 끝에서 왼쪽으로 가면 비양나무 자생지를 만나게 된다. 비양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오직 비양도에만 분포하는 희귀종으로 습하고 그늘진 곳을 좋아하고 사람 손이 닿으면 죽어버리는 예민한 습성을 가진 나무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48호로 지정 보호 중이다.

발길을 돌려 반대편 정상에 있는 비양도 등대를 향해 오름의 능선을 오르다 보면 울창하게 우거진 대나무 숲터널과 마주하게 된다. 비양도는 예전에는 죽도(竹島)라고도 불릴 만큼 대나무가 많았는데, 비양도 대나무는 가늘고 단단한 것이 특징으로 고려시대 때부터 화살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대나무숲을 지나 2~3분이면 제주 본섬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비양봉 정상의 비양도 등대에 도착하게 된다. 왼쪽 끝 애월읍에서 한림읍을 지나 오른쪽 끝 한경면까지, 제주 북서부권을 한눈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어 차근차근 돌아봐야 한다. 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은 다음에도 비양봉을 꼭 다시 올라야 하는 이유로 충분했다. 비양도 등대의 역사를 말해주는 ‘최초점등 1955년 09월 01일’이라는 표지판을 뒤로하고 발길을 다시 비양항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번 비양도 탐방은 마무리가 되어갔다.

항구로 가는 길 위에서 오늘의 여정을 되짚어 본다. 그리고 다

시금 느끼는 것이지만, 작은 섬 비양도에는 유독 비양도 유일의 것들이 많다. 비양도에만 자생하는 비양나무를 비롯해 화산학의 보고답게 화산탄과 호니토는 비양도에서만 볼 수 있고, 염습지인 펄랑못도 국내에서 비양도가 유일하다. 무엇보다 유일하게 생겨난 내력이 역사서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섬이다. 천년의 섬, 비양도. 과연 또 어떤 비밀이 이 섬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까. 다시 발길을 되돌리게 하는 참으로 매력적인 섬이다. 🏰

대나무 숲터널과 순비기꽃



제주 원도심 이야기 3

‘심지다방’에서 ‘감성카페심지’까지

글 고영림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장 / 사진 정삼권 정오디오 대표

제주시 성안에 남아 있는 옛길 중에 눈에 띄는 큰길이 있다.
중장년 나이의 제주도민들은 이 길의 이름만으로도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된다.
셀 수 없을 만큼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칠성로,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추억을 만들어준 칠성로는
산지천 서쪽에서 관덕정 앞까지 이어져 있다.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길 중의 하나지만
과거의 북적거리던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해방구나 다름없었던
이 옛길에 있었던 극장, 다방, 빵집, 여관, 양장점, 신문사, 잡화점이 남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칠성로가 가진 힘이자 매력이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던 장소 중 하나였던
‘다방’은 단연 칠성로의 대중문화를 이끄는 구심점이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카페’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름을 전해준 다방과 그 이름을 이어받은
카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칠성로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Jeju Music

오늘의 신창곡
마보라 스트라이프에 우연인러브~

정삼권(정오디오대표) 심지다방 대표 겸 DJ 시절

space When the dream is gone It's a lonelier place I kiss the morning
goodbye But down inside You know we never know why
ng When eyes meet eyes And the feeling is
a woman in love And I'd do any thing

★ '심지다방'에서

'감성카페심지'까지 ★



현재 운영 중인 오디오전문점은 1989년부터 시작했고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1994년 고전음악 전문 커피숍 '엘그레코'를 창업했다. 경영은 정대표의 부인이 맡았다. 코리아극장 옆 '문의원' 건물을 멋지게 리모델링해서 눈에 띄는 명소가 되기도 했다. 1997년 IMF로 운영난을 겪다가 1998년 '엘그레코'는 문을 닫는다. 그러나 교향악, 프로그레시브뮤직, 크로스오버 등을 LD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다방시대를 잇는 음악카페 문화를 선도했다. 사람들에게 추억을 돌려주는 일을 하고 싶은 정삼권 대표는 아직도 음악다방, 음악카페를 꿈꾸고 있다. 그래서 제주시내를 꼼꼼히 답사하면서 중장년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함께 모여 음악을 감상하는 장소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삼권 (정오디오대표) 현재 모습



1976년 2월 28일~1996년 5월 29일. 감성카페심지에 게시되어 있는 날짜로 심지다방의 시작과 마무리를 확인하게 해준다. 심지다방을 기억하고 있는 김경은 대표가 제주시 원도심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현장이 감성카페심지다. 칠성로길8은 다른 아닌 심지다방이 있던 건물의 현재 주소다. 심지다방은 지하에 있었으나 감성카페심지는 1층에 자리잡았다. 김경은 대표의 기억 속의 심지다방은 1989년에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난생처음 들어와 본 다방이었다. 매캐한 담배 연기, DJ가 틀어주는 음악, 처음 보고 듣고 맡게 된 다방 문화는 충격에 가까웠다. 김경은 대표 역시 여느 청년들처럼 음악다방을 드나들면서 감성을 키웠고 추억과 이야기를 쌓았다.

중년이 된 김경은 대표는 고즈넉하다 못해 쓸쓸하기까지 한 칠성로를 보면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아쉬움과 그리움이 섞인 착잡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던 그는 2019년 2월부터 칠성로 여러 장소를 물색했고 다행히 심지다방이 있던 건물 1층에 비어있던 이 장소에 감성카페심지의 등지를 틀게 되었다. 칠성로 키드였던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테리어와 전기배선 등 여러 작업들을 십시일반 재능기부 덕에 마칠 수 있었다. 우리의 추억을 함께 복구해보자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했다.

왜 감성카페라는 이름을 달았는지 궁금해진다. 디지털에 의존하는 많은 것들이 일상의 모습이 되어버린 요즘, 레트로 감성이 오히려 위안을 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부모 세대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되어주면서 세대 간의 가교가 되어주고 싶기 때문이다. 카페에 들어서면 아담한 뒤뜰이 눈에 들어온다. 돌담이 여전히 남아 있는 작은 정원을 만나는 순간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도심의 오아시



③

스나 다름없는 이 공간은 감성카페심지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 공간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돌담을 사이에 두고 과거

① 김경은(감성카페심지 대표) 현재 모습

② 감성카페심지 김대익가수

③ 감성카페심지 광해행찬

제주의 나눔 문화 즉 제사나 명절을 지낸 후 음식을 이웃과 친척들과 나누던 '반 태우는 일'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돌담 너머에 있는 은행 직원들이 점심 식사 후 커피를 주문하면 차롱에 담은 커피를 돌담 너머로 배달해주는 장면은 호뭇하기까지 하다.

김경은 대표는 DJ가 활동하던 음악다방의 전통을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재현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제주출신으로 대화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서강대 중창단 '에밀레' 멤버였던 가수 김대익을 초청해서 언플러그드 기타 음악으로 7080감성의 곡들을 들려주는 소박한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물론 라이브 공연이 아니더라도 요즘 트렌드인 SNS 음악채널을 활용해서 음악을 다양하게 들려주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본다. 게다가 커피 중심의 다방 시대와 달리 마실 거리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먹을거리도 연구개발해서 내놓고 있다. 제주도 원도심 역사의 중요 인물인 광해 임금의 이야기를 담은 차롱도시락 '광해행찬'은 받아든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1956년생 정삼권 대표는 성산을 고성리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제주시로 유학오면서 제주시 칠성로 문화를 흡수했고 수십 년이 지났어도 칠성로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김경은 대표는 제주시 칠성로에서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낸 세대인 1971년생이다.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는데 이야기만큼 상상을 자극하는 것이 있을까. 그때는 그랬지,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그런 일이 있었지, 아쉬움과 애뜻함이 섞인 추억 속에 잠기다 보면 일상과 잠시 거리를 둘 수 있다. 현재는 비루하고 고달프나, 비록 되돌아갈 수는 없으나, 청춘의 편린들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리는 행복한 순간들이 고마울 따름이다. 시간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아. 돌아오라, 칠성로로. 돌아가자, 칠성로로.

서귀포시 도심 속 올레길에 공원도 물도 먹거리도 몬딱 하영, 하영올레

글 강진희 작가 / 사진 편집부

공원을 품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사는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너른 정원과 마당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10평 미만 원룸에서 기거하든, 50평이 넘는 아파트에서 살든, 누구든지 언제든지 현관문을 나와 계절마다 변하는 정원과 푸르른 자연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도시, 즉 그린인프라 (Green Infrastructure)가 단단한 도시는 시민들에게 그 자체가 복지이고 축복이다. 우리가 사는 이곳 제주에서도 녹색복지를 아낌없이 제공하는 곳, 서귀포시가 있다. 올해 서귀포시는 원도심 내, 점처럼 흩어져 있는 공원 6곳을 연결하여 유연한 선으로 이어지는 길을 조성했다. 시작점이 다시 도착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의 회귀능력을 지닌 하영올레길에서는 길을 잃을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걷고 싶은 도시는 소외가 없는 곳이다. 걷는다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로 땅의 기운을 흡수하여 자연과 발맞추며 나가는 순환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걷는 행위와 닮아있는 순환의 길, 하영올레길 위에서 흥기확 서귀포시 관광진흥팀장을 만났다. 하영올레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이들이 이곳에 와서 서귀포시의 녹색복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없이 걷고 걸었던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하영올레길을 걸었다.



칠십리 시공원 내 천지연 폭포가 보이는 전망대

먼저, 하영올레를 기획하고 조성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서귀포 시내에는 매력적인 문화관광자원이 아직도 많이 숨어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제주시와 그 외 타 도시들과는 다르게 차별화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서귀포 도심 속의 공원입니다. 걸매생태공원, 칠십리 시공원, 새섬공원, 자구리공원, 정모시공원, 솜반천까지 6개 공원이 있는데, 기존에는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길을 만들어야만 사람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닌, 사람들이 한가히 거닐게 되는 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서귀포 도심 속, 공원 6곳을 중심으로 서귀포 천혜의 자연경관과 특화거리 3곳인 이중섭거리, 칠십리음식특화거리, 아랑조을거리의 매력을 융합하여 연결하는 길을 비로소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귀포 도심 속 걷기 과정에서 자연뿐만 아니라 문화, 사람 등의 인문적 가치까지 보고 느낄 수 있는 길을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기획 아이디어의 발상지는 어딘가요?

김태업 서귀포시장님이 취임 전부터 서귀포를 산책하면서, 구상했던 꿈을 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하영올레 아이디어로 제안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서귀포가 갖고 있는 좋은 관광자원을 구슬처럼 꿰어 보석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강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길을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관광 산업의 전문기관인 '제주관광공사'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기획, 답사 등 준비과정을 거쳐, 꼬박 1년만인 올해 7월 31일에 하영올레길을 도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칠십리 시공원 내 숲속이 보이는 새섬 전망대

하영올레의 이름은 제주 사투리 ‘하영’에서 온 것이지요?

네! ‘많다’라는 제주어의 ‘하영’이라는 말은 물도 많고, 공원도 많고, 먹거리도 많은 서귀포 도심 속, 하영올레를 걷다보면 이것저것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영올레?” 즉, “많이 올래?” 라는 중의적 의미를 갖고, 많은 사람들을 하영올레로 초대하고 싶은 환영의 마음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존 길들과는 다른 특히, 제주올레와 차별화된 하영올레만이 갖고 있는 고유성은 무엇인가요?

다른 길과 다른 점은 순환한다는 점! 예를 들면, 대구에 있는 ‘김광석거리’처럼 거리는 출발점과 종점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거리의 종점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은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제주 올레길도 코스를 완주하면 그 길에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기존의 직선형의 올레길과는 달리, 하영올레길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출발하든 도형처럼 출발점이 도착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영올레는 도심을 순환할 수 있게 도심 공원들을 중심

으로 길을 연결한 결과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해도 다시 그곳으로 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하영올레는 일부러 관광지나, 명승지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옆길로 돌아서 갑니다. 왜냐구요? 발견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보물찾기처럼 서귀포의 숨은 매력들을 하영올레에 다 흠뻑 넣었습니다.

아! 그래서 순환의 의미로 하영올레 마스코트가 제주올레의 상징인 ‘간세’ 조랑말 위로 원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군요!

그럼, 서귀포의 매력들이 흠뻑 들어 있는 하영올레 세 개 코스를 각각 소개해주세요.

세 개 코스 모두 서귀포시청 제1청사에서 출발하여 다시 제2리로 돌아오는 2~3 시간이 소요되는 순환형 코스입니다.

자연과 생태 중심의 1코스는 서귀포시청을 출발해 갈매생태공원, 칠십리 시공원, 새연교, 새섬공원, 천지연폭포, 아랑조울거리를 거쳐 시청으로 돌아오는 8.9km 구간입니다. 공원이 많이 몰려있지요. ‘풍경이 있는 오솔길’ 초입에서는 서귀포에서 가장 좁은 오래된 골목길을 정겹게 걸어볼 수 있습니다.

문화와 먹거리 중심의 2코스는 서귀포시청에서 정모시킴터,

불로초공원, 자구리해안, 서귀포항, 이중섭거리, 매일올레시장을 거쳐 시청으로 돌아오는 6.4km 구간입니다.

하천과 마을을 테마를 둔 3코스는 서귀포시청을 출발점으로 시작하여 솜반천 산책로, 변시지 그림정원, 지장샘, 산지물 물놀이장, 동홍천 힐링길, 서귀포시청을 돌아오는 7.5km 구간입니다.

관광지라는 낯선 설렘으로 관광객에게는 걸을 이유가 충분하겠지만, 도민들에게는 걸을 수 있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걷지 못했던 길, 몰랐던 길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걸을 만한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마다 이색구간을 넣었습니다. 각 코스 내에는 추억의 숲길, 동홍천 이음길, 정방폭포 물길 등 기존에는 없던 길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영올레 코스 중, 새롭게 개척된 길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1코스에 '추억의 숲길'은 60년 만에 개방된 길입니다. 걸매생태공원에서 칠십리 시공원으로 가려면 큰 길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건너면 도보여행의 매력이 확 절감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도보 환경이 좋아도, 기본적으로 길을 건넌다는 것은 올레길에서는 최소화해한다는 목적 아래 답사팀이 답사 경로를 고민하며 찾아 해했습니다. 어느 날, 도저히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쳐 앉아있던 올레탐사팀장에게 동네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정을 들은 할아버지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랑 손잡고 걸은 적이 있는 길이 있는데 함께 가보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간 그곳에 진짜 길이 있었습니다. 서귀포 할아버지의 추억 소환으로 60년 만에 길을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대중적으로 반응이 좋은 코스는 어떤가요?

도민들에게는 시원한 하천과 마을이 있는 3코스가 반응이 가장 좋습니다. 서홍동의 인적이 뜸했던 길에 활력을 불어넣은 탓에 주민들이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서귀포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1코스가 가장 인기가 있지요. 특히, '하영올레'



주물로 만든 하영올레 표식이 길위에서 안내를 해준다.

개장을 위해 제주올레, 제주관광공사, 서귀포시가 함께 하영올레 활성화 협약식을 가졌던 칠십리 시공원 내 천치연 폭포가 환하게 보이는 전망대가 포토존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영올레길을 조성하면서 가장 살리고 싶었던 주안점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요?

관광자원의 보물섬이라고 불리는 서귀포지만, 보고 즐기는 장소들이 곳곳에 점처럼 자리하고 있어서, 방문객들이 연결점 없이 마치 풍당풍당 이동하는 단편적인 관광이 되어 왔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천천히 걸으면서 서귀포의 숨은 매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하고, 누구든 좀 더 머물게 하고 싶고, 그 시간의 서귀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하영올레를 통해 서귀포가 사람들에게 구전되는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체류형 웰



니스 관광도시'를 만드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도 걷는 즐거움을 제공해서, 도민들의 건강증진 행위 실천이 일상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영올레는 제주올레와 어떤 관계인가요? 따로 또 같이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인지요?

서귀포시 원도심 도보 투어라는 점에서 제주올레와 겹은 다르지만, 사람들이 걷는 제주의 길을 먼저 앞장서서 걷는다는 공통된 취지에 따라, 서귀포시는 하영올레 활성화를 위해 제주올레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주올레가 가진 길에 관한 저작권인 '올레'와 브랜드 이미지인 '간세'의 무상사용을 서귀포시에 승인해주었고, 코스 운영에 대한 자문도 제공해주었습니다.

하영올레길에서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 혹은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주세요.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누구나 상시로 하영올레 플로깅(Plogging)에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영올레 코스를 걸으며 쓰레기를 주우면 자원봉사 2시간을 인정해주고, 걸었던 길의 개선점을 발견해서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 3시간을 인정, 총 5시간을 비대면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없는 탓에 중학

생 참여가 높습니다. 올해 한 봉사는 내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건강과 연결해서는, 서귀포보건소와 함께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챌린지(하영올레길 따라 걷기)'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서귀포가 비만율이 전국 1위이고, 걷기실천율은 18.9%로 전국 평균 37.5%의 절반 수준입니다. 출발 전 '워크온' 앱 실행 후 참여를 눌러, 챌린지 완주 후 '받기' 버튼을 누르면 선물함에 쿠폰이 들어가는 이벤트로 한 달 만에 준비된 120개의 기념품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호응이 높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기획하는 흥미로운 이벤트도 간략하게 홍보해주세요.

내년에 '명사와 함께 걷는 동행 투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을 진행하는 허영만 화백에게 하영올레길 먹거리 자문을 충분히 구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 하영올레에 앞으로 추가되는 계획은 없나요?

앞으로도 하영있수다(웃음). 카카오 본사와 협약으로, 하영올레길의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하여 사람들의 안전한 도보여행을 도울 계획입니다. 하영올레를 주야간으로 안심하며 걸을 수 있도록 올해 말부터 차츰 야간개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영올레의 정확한 방문객 수를 알기 위해 인원측정 계수기를 각각 코스마다 설치하고 있습니



- ① 흥기학 서귀포시 관광진흥팀장
- ② 하영올레 2코스 내 서귀포자구리공원 해안길을 걷고 있는 필자와 흥기학팀장
- ③ 매화나무 숲 걸매생태공원 산책로



걸매생태공원 옆 숨반천(연의천)

다. 주중, 주말, 시간대별, 날씨별로 이용객 수를 파악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더 나은 하영올레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하영올레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자동차 운전자의 주차 편의성은 어떤지요?

바로 그 접근성과 개방성을 위해 서귀포시에서 가장 대중교통이 편한 서귀포시청 제1청사에 하영올레의 시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용객들은 지하 2층으로 된 시청 주차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영올레의 개장과 함께, 서귀포 시청도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관청의 이미지를 깨고 시민들에게 친밀한 장소로 다가가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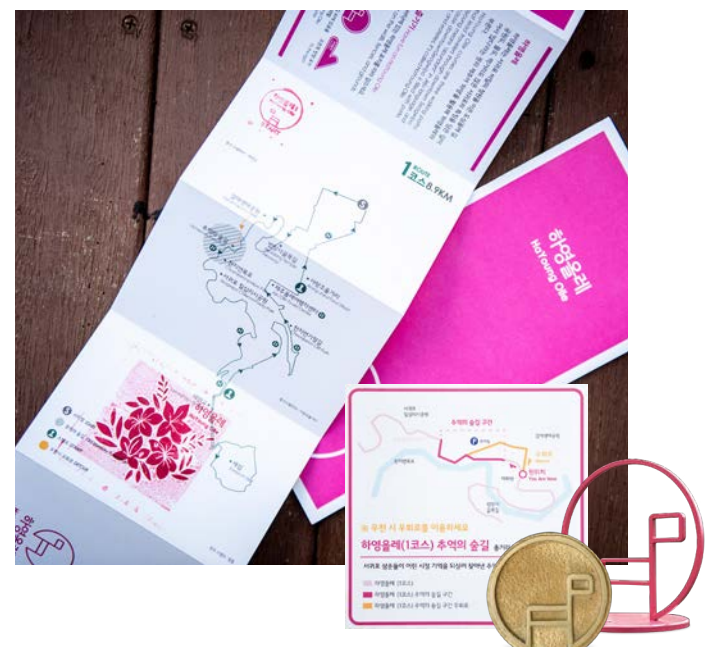
하영올레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스탬프투어에 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하영올레는 제주올레와 마찬가지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 중간지점에서 예쁜 디자인의 도장을 찍을 수 있는 패스포트가 별책부록으로 제공됩니다. 하영올레의 지도와 패스포트는 관광안내소 또는 서귀포시청 안내데스크, 제주올레여행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도민에게 직접 하영올레로 초대하는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서귀포 도심 안에 세 개 코스의 길이 있기에 하영올레를 ‘서귀포 도심 속 올레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전문 도보객만을 위해 설계된 길이 아닌, 서귀포 주민들과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코스별로 접근하기 쉽게 조성했습니다. 코로나 블루시대에 움크려 있던 몸과 마음을 곧게 펴서 천천히 서귀포 도심을 순환해서 걸어보십시오. 사람이 걸어가면, 길은 여럿이 함께 가는 길이 됩니다. 🍵

하영올레 지도와 패스포트





어멍의 약손의 비밀이 되어준 늙빠는 예로부터,
‘가을에 먹는 무는 인삼보다 좋다’, ‘매일 무를 먹으면 의사 만날 일이 없다’ 등
유독 건강과 관련한 속담이 많은 우영팻에 자라는 만만하고 고마운 인삼이었다.

제주의 가을, 어멍의 우영팻

땅 밑에 든실하게 살이 차오르는 가을 놔빼(가을 무)

글 / 사진 편집부

우영팻이란 제주어로 집 주위에 있는 작은 텃밭을 의미한다. 제주의 척박한 지리적 농업환경에서 가족들의 사시사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제주 어멍(어머니)들은 우영팻(텃밭)을 집 담장 안에 들어 자식처럼 매일매일 가꾸어나갔다. 물질이나 밭에 가지 않은 날이면, 우영팻에 쪼그려 앉아 벗과 함께 놀 듯 낮 시간을 보낸 어멍은 학교에서 돌아온 딸의 얼굴을 보며 “우영팻에서 호쉴 몽케당 보난, 벌써 학교에서 와시냐?”하며 갓 딴 채소가 담긴 소쿠리와 함께 인사를 건넨다. 우영팻 위로 여름 땀방울이 과량과량하고, 차디찬 겨울바람이 한참을 놀다 가더라도, 사시사철 그곳에는 울망 줄망 다양한 채소들이 요망지게(아무지게) 초록빛을 띠며 잘 자라주었다. 어멍의 우영팻은 매 끼니 마다 신선한 식자재를 제공해주는 가족의 든든한 생태 냉장고였다..

무궁무진한 제주 무, 놔빼

제주에선 무를 ‘놔빼(놈빼)’라고 부른다. 한여름 내내 뜨거운 햇살이 자리를 펴고 누워있던 우영팻에 어느덧 가을바람이 선선히 감겨 오면 제주 어멍들은 놔빼를 심었다. 지금은 기후와 수요의 변화로 제주도에서 나는 농작물 중 가장 넓은 재배면적을 차지하며 제주 월동무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제주 어멍들은 가을별이 우영팻에 들기 시작하면, 놔빼 파종을 했다. 무는 보통 종자를 뿌린 지 70일이 지난 시점에 거두면 가장 맛있는 맛을 낸다. 우영팻 흙위로 살짝 올라오는 무의 하얀 속살은 성격이 급한 애들에게는 큰 유혹이었다.

어멍 몰래 스읍 뽑아 든 무를 한 입 베어 물면 이내 맵싸하고 얼얼한 덜 익은 맛에 금세 씹다 만 무를 뱉어 낼 수밖에 없었지만, 직접 어멍의 손으로 뽑아 송당송당 씹어준 든실한 무는 맛이 달랐다. ‘아삭’ 소리와 함께 시원한 청량감이 목구멍으로 오물락하게 퍼지면서 달달함이 내려앉았다. 우적우적 씹을수록 시꺼(제사)에 귀하게 맞본 그리운 배 맛의 달큰함과도 닮아, 옛사

람들은 무를 입안이

심심할 때면 주전

부리로 즐기

도 했다. 사실,

제주도농업기

술원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 무

의 당도는 7브릭스를

웃돈다. 제주 무는 과일이라

고 해도 믿을 수 있는 수준의 단맛

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식자재

와도 맛과 영양면으로도 좋은 궁합을 갖고 있는

무는 조림, 나물, 국, 김치 등의 요리는 물론 소

화불량, 감기 등의 민간요법으로도 무궁무진하

게 활용되어 왔다.

아방(아버지)이 바당에 나가 어떤 갯것(해산물)

이나 물고기를 잡아 오든, 정지(부엌) 뒷문 밖

장독에 구수하게 익어가는 날된장과 우영팻에

능름하게 자라는 놔빼만 있으면, 어멍은 자신

있게 가족을 위한 맛난 저녁 밥상을 차릴 채비

가 되어 있었다.



우영팻 인삼

튼실한 ‘놈뻤(놈뻤)’가 자라는 우영팻은 옛날 제주의 가정약국이었다. 체하거나 감기로 인해 집안에 기침 소리가 들리면 어머님은 우영팻의 놈뻤을 뽑아 약으로 사용했다. 어머님의 약손의 비밀이 되어준 놈뻤은 예로부터, ‘가을에 먹는 무는 인삼보다 좋다’, ‘매일 무를 먹으면 의사 만날 일이 없다’ 등의 건강에 관련된 속담의 주인공이었다.

동의보감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무에는 다양한 영양성분이 골고루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무의 뿌리가 가진 비타민C와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효소 덕분에 체기가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무를 갈아 마시면 도움이 되고, 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 무와 함께 곁들이면 위의 부담감을 덜어주게 된다.

또한 무가 가진 베타인 성분은 간 기능을 개선해 숙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며 팩틴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어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에 대해 예방에 도움을 준다. 찬바람 속에 단단하게 자란 무에는 비타민 C와 무기질 성분이 풍부해 요즘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몸의 면역력 강화

를 높일 수 있다. 기관지 건강에 이로운 무를 감기에 걸렸을 때 꿀과 함께 절여서 마시거나, 말린 무를 뜨거운 물에 우려먹거나 혹은 그냥 생무를 넣고 푹 끓인 물을 마셔도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무가 가진 풍부한 섬유소는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시원한 변비 탈출에도 좋다.

특히, 무를 햇볕에 말리면 100g에 30mg이던 칼슘이 470mg으로 15배 이상 증가하며 비타민과 단백질은 10배, 식이섬유는 15배, 철 함유량은 48배나 증가하고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D가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와 여성들의 골다공증에 좋은 건강식품이 된다. 무청을 말린 무시래기에는 35% 이상이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위와 장에 머물며 포만감을 줘 비만방지를 위한 현대인의 다이어트 식단으로 안성맞춤이다. 🏆



빙빙 돌려 빛은 빙떡



빙떡은 솔뚜껑에 돼지기름으로 발라서 부친 메밀전에 무채 나물을 넣어 빙빙 말아서 먹는 제주 고유 향토 음식이다. 이름의 유래가 떡 ‘병(餅)’이 ‘빙’으로 변해서 왔다는 설과 반죽을 국자로 빙빙 돌리면서 부쳐서 또는 빙빙 말아서 먹는 모양에서 왔다는 설이 있다. 빙떡의 ‘소’인 무는 메밀의 독성을 상쇄시켜주는 해독작용을 하고, 따뜻한 성질로 메밀의 차가운 성질을 보완해준다. 이미, 옛날부터 제주 사람들은 음식 궁합을 헤아려 왔다. 빙떡의 맛, 재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숨김없이 표현해주는 소위 밍밍한 첫맛에서 빙떡의 음미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메밀의 담백한 맛에 둘러싼 무의 삼삼함과 달콤함과 시원함이 차례로 대기하고 있으니, 요물요물 더 입을 움직여보자! 조금의 화려함도 가미되지 않은 단출하고 소박한 맛의 매력은 우리를 자극성 없는 묘한 중독성있는 맛으로 조용히 이끌 것이다. 빚어놓은 빙떡이 앞에 내려 놓일 때마다 멈출 줄 모르고 뺨을 손을 어이하리?

만드는 법

재료

메밀가루, 무, 쪽파, 참깨, 소금, 돼지기름, 참기름

조리과정

- ① 메밀가루에 미지근한 물을 섞어 약간의 소금 간을 하여 묽은 반죽을 만든다.
- ② 무는 채 썰어서 뜨거운 물에 살짝 익힌 뒤, 송송 썬 실파와 함께 참기름·소금·참깨를 넣고 버무려서 무채를 만든다.
- ③ 달군 팬에 돼지기름을 두른 후, 국자로 메밀 반죽을 떠서 빙빙 돌리면서 얇고 넓게 전을 부친다.
- ④ 지져낸 메밀전 한쪽에 양념한 무채를 가지런히 얹어 돌돌 만 후, 남겨둔 양쪽 가장자리를 접히도록 손으로 눌러준다.

※ 빙떡의 소인 무채는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넣어야 곱떡하게(예쁘게) 빙떡 말린다.

은갈치 무조림



은갈치의 제철이 가을이다. 봄의 산란기를 걸쳐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늦가을까지 영양분을 보충하는 습성 탓에, 10월부터 갈치는 살이 통통하게 차오르고 지방도 풍부해져 쫄깃함과 감칠맛은 배가 된다. 칼날같이 매끈하게 빛나는 갈치 본연의 은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제주 사람들은 갈치를 그물이나 낚시로 하나하나 잡아 올린다.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는 은갈치이지만, 가을 동안 단단해진 가을무의 달콤함과 고소한 갈치의 감칠맛의 환상적인 조우는 ‘은갈치 무조림’에서 비로소 극강의 맛을 발한다. 매콤한 맛의 양념까지 더해진 칼칼한 은갈치 무조림은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가을 밥상의 무법자가 될 것이다. 밥도둑의 단연 으뜸이니, 번거로움 없이 미리 수북한 고봉밥을 옆에 두고 숟가락을 들자.

만드는 법

재료

갈치 1마리, 무 1개, 다시마 2장, 멸치 8개, 양파 1개, 대파 1대, 풋·홍고추 각각 1개

양념장 : 고춧가루 2큰술, 고추장 1큰술, 된장 0.5큰술, 진간장 3큰술, 조선간장 1큰술, 맛술 2큰술, 물엿 3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생강즙과 후춧가루 약간

조리과정

- ① 갈치는 비늘과 지느러미를 제거한 뒤 칼집을 넣고 소금을 살짝 뿌린다.
- ② 무는 도톰하게 송덩송덩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준비하고, 양파와 대파도 송송 썰어준다.
- ③ 냄비에 무를 깔고, 물, 다시마, 멸치를 넣어 먼저 푹 익힌다.
- ④ 무가 익는 동안 양념 재료를 섞어서 양념장을 만든다.
- ⑤ 무가 어느 정도 익으면 멸치와 다시마만 건져내고, 갈치를 올리고 양념장과 양파와 대파를 넣고 끓인다.
- ⑥ 뚜껑을 덮고 끓이다가 중간 중간 밑에 있는 양념국물을 끼얹으면서 국물이 자작할 때까지 조린다.
- ⑦ 매운맛의 선호도에 따라 홍고추와 풋고추를 각각 보기 좋게 송송 썰어서 한번 끓이면 완성이다.

감저뻬데기광 경운기

글 김 신 자 시인
제 주 어 보 전 회 회 원



“나도 술푸데 서방 만난 애기덜 두릴 적이 안혀여본 장시가 었저. 저 웃드르 강 쫓, 콩, 밭덜
홀거 웃이 집집마다 돌아댕기멍 잡곡덜을 쫓센 허멍 받안 낫단 쫘구루마로 쉬언 완 집이서
마다리에 봉혀언 버스에 쉬어 7전 모실포장이 간 소매허엿주게. 어뎡허당 도매로도 냉기
곡 콩장시 쫓장시 못준디게 허멍도 죽은아덜 고등학교 마치난 설러볼엇주.”

칠십이 훨씬 넘은 정자 삼춘이 경운길 몰안 밭더레 가단 나를 만나지난 경운기 질레에 세
와둬서 이녁 살아온 이악을 허는 거라양. 탕탕탕탕 경운기 소리 반, 정자 삼춘 신세타령 반,
경운기 몰안가는 게 잘도 멋지덴 혼마디 웃주왓단 제라흔 ‘경운기에 대한 전설’을 듣게 뉘
어서마썸. 옛날엔 기쟁이가 집이 들어와가민 예편덜은 당추 문직을 생각도 못헤나신디 요
샌 여즈 남즈 흘꺼웃이 주동차영 트랙타영 와릉와릉 몰아댕기는 시상이라노난 주신만 시
민 이녁이 문 허는 시상이 뉘어서마썸. 우리 동네에도 트랙타 몰앙 밭가는 예편삼춘이 뻬뻬
싹수다게. 옛날이사 농번기에 혼창 주르질 때 아방이 어드레 강 술 먹영 기벨이 편편허여볼
민 농시흔 곡식은 문 비에 맞아도 어뎡 허여볼 도레가 웃어나서마썸. 어뎡덜은 나타나지 안
허는 아방신더레 욱만 욱만 처허멍 발만 동동굴렸주마썸. 경운기가 귀허던 그 시절, 우리
윤집이 창기 삼춘도 구루마로만 하간 짐덜을 쉬언 뎡기단 감저뻬데길 폴앙 목돈 생기민 경
운기 혼 대를 사사켄 허멍 메날 골악골악 헛덴마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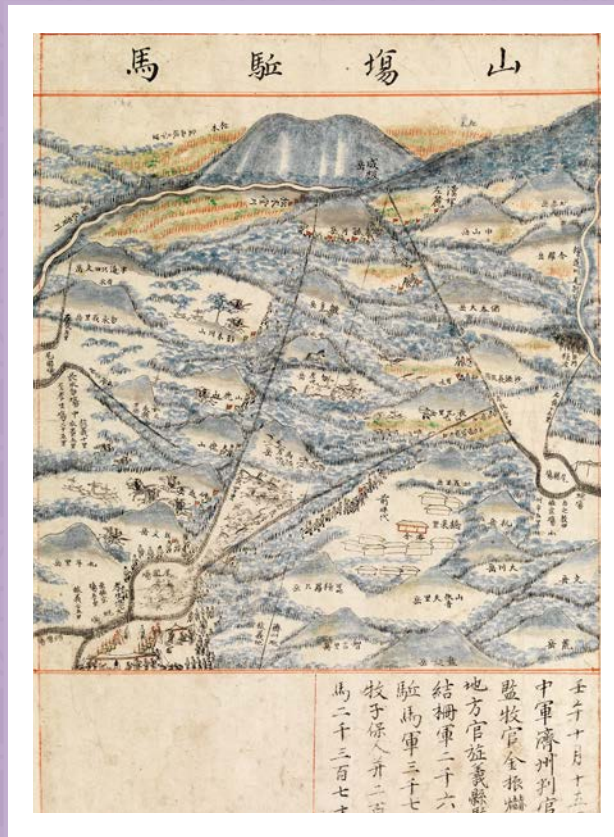
메틀 후제 감저뻬데기 공판허는 날이랏수다. 삼춘은 비맛안 곰생이가
검버섯추룩 히뚝히뚝난 것도 등외는 쳐줄테주 허멍 감저뻬데길 혼
구루마 7득 쉬언 농협창고더레 갓수다. 경혼디, 감저뻬데길 폴레 간
삼춘은 어둑아도 집고망에 노시 들어오을 안혀여서
양. 계난 정자 삼춘은 무신 송시가 낫주 허
멍 으기즈기 다 돌아댕기멍 훗이레 뎡겿수
다. 쫘을 적부떠 손버릇이 안좋아노난 어디
강 술 처먹언 노름판에 빠져신가 하간 생각허
멍 정자 삼춘 북부기가 딱딱흔 뻬데기도 문 7루
로 뎡들아볼 여산이랏수다. 감저뻬데기 폴레 간
삼춘은 그날 주낙이 아니라 뉘넉날도 혼창 오밤
중이 뉘어서 으실렉이 집고망이 나타났수다. 노도
싹치지 못흔 생이라 부시시흔 것광 쉬염도 박삭허여둬



서 나타난 서늱을 보난 정자 삼춘은 기가 맥힐 께 아니우꽈? “양, 어드레 갓단 이제사 주지레기 집고망이 기여들어웁데가? 이레 감제뻗데기 폰 돈 내여놉서보저.” 정자 삼춘은 게므로사 경운기 살 돈을 돈 들러먹어신가 ㅎ멍도 돈을 내여노렌 막 흥여서마썸. 동네가 떠나가라 웨울러도 삼춘은 지은 죄가 이서노난 말므레기 모냥 속심ㅎ엿수다. “양, 어디 모인감제 숯안 먹읍데가? 청을 버랙이 먹읍데가? 사람이 굴오민 머센 ㅎ여사주. 무사 말므레기 뒤어불엇수꽈?” 정자 삼춘이 부지뻗이 들런 토시 막 흥여가가난 창기 삼춘은 마치 못ㅎ연 솔리 대답ㅎ엿수다. “ㅎ나도 웃어게. 오단 돈 문드려불어서.” “무신거? 어뻗마썸? 그 작산 돈을 어드레 간 일러불데가? 그게 말이꽈 보말이우꽈?” “어뻗ㅎ단보난 경 뒤어불어서게.” “멩년 봄이 뒤민 경운기 살 돈을 ㅎ루 아침에 문짝 썽 오민 나신디 어뻗ㅎ렌 말이우꽈?” 악만 남은 정자 삼춘은 밤새낭 개아구리질ㅎ멍 창기 삼춘을 들들 뷔아서마썸. 뒤녃날 밤이 삼춘은 이녁이 ㅎ여진 전상머리가 넘이 어이침사리웃인 생인고라 혼숨만 푹푹 쉬엿수다. 아무생각웃이 줌이나 자젠 ㅎ난 예펜 삼춘이 나갓단 어디서 소문을 들은 생이라 춤이 천장만장 뒤어가명 유리창이 벌려져라 웨엿수다. “어느 세겿년 이신 갈매기 다방이 간 밤고녕이 뒤연 와신고게. 세겿년 분 내음살이 경 좋읍데가? 살렘을 확 갈라불어사주. 춤말 억장이 무너전 못 살켜원!. 똥싸게 일만 일만 ㅎ당 나가 죽주.” 정자 삼춘이 굴앗단 말을 굴악굴악 밤새낭 웨여가난 혼숨만 푹푹 쉬멍 신세타령을 ㅎ여집주. “거 춤 곰생이 핀 뻗데기를 등외로 쳐주카부텐 ㅎ여신디 어뻗ㅎ난 상등품으로 쳐줘네 스몫 기분좋은 등외 받은 썸치고 푹 혼 잔만 ㅎ게 ㅎ멍 들어간 게 경 뒤어불어서게. 그눔이 상등품만 받지 안ㅎ여도 아무 일웃이 집고망이 들어와실진디……” 삼춘은 목도 파썸 물르콕 뻗데기 꺾도 막 잘 받아지난 지꺼전 쌍화차 혼 잔만 ㅎ영 가겿 다방더레 들어가신디 그 고망이 오물렉이 빠전 오꽈 나오들 못혼 거라마썸. “이눔이 서방, 나가 어뻗 분풀이ㅎ민 좋으코게. 새끼덜이영 줌 안 자가명 일년 내낭 농시혼 걸 ㅎ루아침에 문짝 들러먹언 나타난게 사람이우꽈? 그 다방년 분 내음살, 술 내음살에 흘런 미쳐주게. 지 정신이 아니주게. 어느 술 못 먹언 죽은 조상 구신이 불어사신디, 아이고 나 팔제여.”



뒤녃날 아침이 창기 삼춘은 이녁이 혼 전상이 이서노난 동세백이 밧더레 뒤여가불고 예펜 삼춘만 정지서 불숨으멍 밥을 ㅎ는디, 초란이 닳은 멩자어멍이 나타난거라양. “양, 성님. 아지방이 어디 간 돈 다 일러분 중 알았수꽈?” 야인 토시 무사 영 동세백이 나타난 날 부에뒤 썸신고 ㅎ멍도 주우룩ㅎ연 “게난 어느 세겿년신디 간 돈 들러먹언 왓젠?” “성님, 말도 맵서게. 삼춘이 간 술칩 일름이 뒤중 알았수꽈? 불나방이렌마썸. 불나방, 쌀롱 불나방.” “무신거 어뻗? 불나방? 불나방이고 불여시고간에 머리커럭을 돈 틀영 불부썸불어시민 좋으켜원.” 그 헤 저술, 불나방 어느 세겿년은 동네 삼춘덜 가심에 브름만 존뜩 불어놔된 봄브름 탄 어드레 확 가불엇수다. 하 큰 동네에 하간 소도리덜만 냉기고 번쩍ㅎ게 스라져 불언마썸. “어느 동네 누젠 쉼 두 므리 놀렷덴 ㅎ여라게, 어느 동네 누젠 밧 두 마지기 풀앗젠 ㅎ여라게. 어느 동네 누게 각신 그 세겿년 훗아간 머리커럭 돈 틀어불엇젠 ㅎ여라게.” ㅎ는 말덜만 하니브름광 혼디 이레화룩 저레화룩 므을을 얼러땡겨주마썸. 🍷



다시 보는 탐라순력 ③

탐라순력도 ‘산장구마’와 만나다

글 김오순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사업지원팀 팀장

제주목사겸 제주병마수군절제사인 이형상은 1702년(숙종 28년) 3월 25일 제주에 부임했다.

그는 석 달 후 「제주민막장(濟州民瘼狀)」을 통해 마정(馬政)의 폐단, 잠녀(潛女)와 포작(鮑作) 등의 과다한 진상, 부세의 불합리, 진상선의 부족 문제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니, 시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가운데 그가 제주섬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은 것은 말을 기르고, 진상하면서 비릇되는 마정이었다. 실제 부임해서 보니, 육지의 목자(牧子)에게 주어지는 위전(位田·급료 대신 목자에게 주어진 농토)이 제주목자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봄과 가을에 점마(點馬) 후에 죽은 말이나 사라져버린 유실마에 대한 책임도 모두 목자에게 물어 말을 변상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한 목자 가족의 고통은 가족을 팔거나 몸을 저당 잡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이 같은 천륜을 해치는 마정의 폐단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마정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3개월간 3읍의 63개 목장실태를 점검했다. 마정문서를 대조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생산마와 고실마, 봉진마 수효를 정리하는 한편 10개 소장의 수령이 겸직하고 있던 감목(監牧)의 업무를 9진(鎭)의 조방장에게 맡도록 조치했다.

이 목사가 부임 전 4년간 이뤄지지 않았던 산마장을 순력 전에 점검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중 「산장구마(山場驅馬)」는 1702년(숙종 28년) 10월 15일 제주 중산간 산마장(山馬場)에서 말을 몰아 마필 수를 점검하는 그림이다.

산마장은 산마(山馬)를 기르는 목장으로, 제주중산간 해발 400m 이상인 초지에 조성돼 있었다. 이 목장은 김만일(金萬鎰·1550~1632)이 말을 기르던 개인목장에서 유래한다. 숙종 때 산마장은 녹산장(鹿山場)·상장(上場)·침장(針場)이 설치돼 있었는데, 목장의 범위는 현재 제주 남원을·표선면·조천읍 일대이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판관 이태현(李泰顯), 정의현감 박상하(朴尙夏), 감목관 김진혁(金振爌)이 배행했다. 목장시설인 목책을 조성하는 결책군(結柵軍) 2,602명, 말을 모는 병사인 구마군(驅馬軍) 3,720명, 말을 관리하고 보살피는 목자(牧子)와 보인(保人) 214명이 동원됐다.

이날 구마에 동원된 5천여 명은 『탐라순력도』 서문에 기록된 당시 제주인구가 9,552호에 43,515명 임을 고려하면 매우 많은 인원이다.

그림을 보면 한라산 성판악을 중심으로 조천에서 표선까지 그물처럼 설치된 목책이 산마장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각 구역마다 말을 취합하는데 필요한 원장(圓場)과 사장(蛇場)이 보인다. 원장은 우마를 취하기 위하여 만든 원형 목책이고, 사장은 취합한 우마를 1두 또는 1필씩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든 좁은 목책통과로이다. 원장은 미원장(尾圓場)과 두원장(頭圓場)으로 나뉘고, 그 중간에 목책을 연결하는 사장이 있다. 말을 점검할 때는 먼저 미원장에 몰아 넣고 사장을 통해서 점검한 후에 두원장에서 취합해 수효를 파악했다.

미원장은 괴종장(怪宗場·제주시 용강동 산간의 목장 이름), 효생장(孝生場·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 산간의 목장 이름), 장수물장(長水勿場·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간의 목장 이름) 등 3곳에 설치돼 있다. 괴종장에서 뺀 결책은 성판악으로, 효생장에서 뺀 결책은 성판악과 장울리악(長兀里岳)으로, 장수물장에서 문악(文岳·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소재 민오름)과 대록산(大鹿山) 방향으로 쳐져 있다.

이 그림에는 또 인근 목장의 거리, 목책의 거리, 3읍 관아와의 거리를 기록해 놓았다. 괴종장에서 제주목 성안까지 거

리는 25리고, 효생장에서 괴종장까지는 50리며 정의현성까지는 25리로 표시돼 있다. 또 장수물장에서 효생장은 25리이고, 정의현성은 10리며, 의귀까지는 5리로 적혀 있다. 이날 구마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이뤄졌으며, 기록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실제 그림도 결책을 중심으로 구마군과 목자 보인이 빈틈없이 경계를 서고 있으며 산마를 몰아 넣고 점검하는 모습이 실감나게 표현돼 있다.

이 목사 일행은 이날 가장 큰 미원장이 설치된 효생장에 장막을 치고 점마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효생장 좌우로 설치된 목책을 통과해 미원장을 들어오는 말과 탄탄이 둘러쳐진 사장이 이날 점마의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다. 이 목사는 구마 후 이날 점검한 산마에 대해, “성질이 매우 거칠어 4~5길이나 되는 큰 나무를 묶어 목책을 돌렸으나 몇 필은 목책을 뛰어넘고 달아나 점검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이 목사가 이날 산장에서 점검한 말은 2,375필이다. 이 해 순력 중 점검한 제주말이 8천필임을 고려하면, 대단한 수효이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결책 외에 말을 키우는데 긴요한 수처(水處)가 ‘유수(有水)’로 표기되어 있다. 물영아리악(勿永我里岳), 물좌질악(勿左叱岳), 장울리악(長兀里岳)에 있는데 물영아리악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현재 물영아리오름이며, 물좌질악은 붉은오름 서쪽에 있는 물참오름이다. 장울리악은 제주시 봉개동의 물장오리오름이다.

성판악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관통하는 긴 선은 제주목과 정의현의 경계이며, 성판악의 좌우로 뻗은 의귀천과 회도천(현재 화북천)이 그림 상단의 좌우로 표기돼 있다.

이 목사는 온 섬이 대풍으로 흉년임에도 5천여 명의 결책군과 구마군을 동원해 산마장의 실태를 점검했다. 앞서 밝혔듯 그는 제주마정(馬政)의 폐해를 시정하지 않고선 백성의 삶을 보전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300여 년 전 제주목자들의 고통이 코로나19로 재현되고 있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가게 문을 닫고 생계를 걱정하는 도민들이 날로 늘고 있다. 도민의 눈물을 닦아줄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하다. 이 시국으로부터 벗어날 비책은 누가 마련해야 할 것인가. 

바람을 타고 흐르는 섬의 기원

글 한진오 희곡작가

바람은 비와 별을 낳는다

누가 뭐래도 제주는 바람의 섬이다. 제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람을 읽는 안테나를 몸속에 지니고 있다. 조금기 품은 갯바람의 비릿한 냄새를 감지해 바다 건너 세상 소식을 귀에 담는다. 오름 사이를 뒹뒹거리는 바람을 매만지며 땅심을 헤아린다. 천상과 지상의 모든 곳을 거침없이 다닐 수 있고 잔잔한 바다를 일으켜 밀물과 썰물을 일구는 것이 바람이다. 어쩌면 바람은 지구의 들숨과 날숨일 텐데 제주섬은 그 역동적인 숨결의 진원지 중 한 곳이다.

제주의 바람 또한 세상 여느 곳의 바람처럼 크게 계절풍과 지역풍으로 나뉜다. 철에 따라 방향을 달리해 제주를 감싸 도는 계절풍은 북극성을 좌표 삼은 방위와 맞물린다. 동풍부터 서풍, 서풍, 남풍, 남풍, 북풍, 북풍, 북풍, 북풍이 줄을 잇는다. 이뿐 아니라 간방(間方)에 따라서도 바람의 이름이 달라진다. 동풍을 동하늬브름, 동남풍을 동마브름이나 든셋브름이라고 부르고, 북서풍을 서하늬브름 또는 서갈하늬브름, 북동풍을 늬브름 또는 늬하늬브름, 서남풍을 늬브름, 든마브름, 서마브름 등으로 불러왔다.

바람의 이름은 지역풍에 이르러 더더욱 다채로운 모습을 보인다. 오랜 시간 강하게 부는 바람은 궁근새, 이와 반대로 오랫동안 부드럽게 부는 바람은 지름새다. 파도를 일으키는 동풍은 겹선새, 시원하게 불어오는 남풍은 건들마, 산바람은 산두새, 회오리바람은 도깡이주제, 태풍은 놀브름 또는 노대브름, 돌풍은 강챙이, 실바람은 멧지바람, 국지풍은 느룻이라고 부른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지역풍이 무려 60여 가지가 훌쩍 넘는 이름을 지니고 있다.

제주의 바람은 홀로 불어오지 않는다. 먹장구름을 몰고 와 흐린 날을 만들거나 아예 한바탕 쏟아붓는 비바람도 일으킨다. 흑한의 계절에는 수직이 아닌 대각선으로 몰아치며 얼굴을 때리는 짜라기눈을 동반한 칼바람도 있다. 열대야 같은 무풍의 시간이 아닌 바엔 쥐 죽은 듯 살랑거리며 산뜻한 별과 함께 나들이하는 산들바람도 있다. 바람은 이렇게 홀몸으로 외출하기보다 또 다른 기후 현상과 짝꿍처럼 나타난다. 이 때문에 제주에는 바람의 신인 영등할망이 이 섬을 찾아올 때 딸을 데리고 오면 바람의 짝으로 햇별을 간택하고, 며느리와 함께 올 때면 비 또는 눈을 동행시킨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바람의 주재자 영등신의 정체는?

그렇다면 별과 비와 눈을 바람에 싣고 다닌다는 영등신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제주 사람들은 영등신을 일러 보통 영등할망이라고 부르며 여신이라고 상상한다. 그런데 바람의 신 영등을 기록으로 남긴 문헌 해상일사(海上逸史) 등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그 내용은 이렇다.

“당나라 대상(大商)의 배가 제주바다에서 난파되었는데 죽은 시신이 네 토막으로 흩어져 두개골은 어등개(오늘날의 구좌읍 행원리)로 떠오르고, 손과 발은 각각 고내, 애월, 명월포구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해마다 정월 그믐에 온갖 바람이 서해로부터 불어오면, 이는 영등신이 오시는 것이라 하여 어촌 사람들이 무당을 불러 들에서 굿을 하였다.”

이 기록은 영등신이 할망인지 하르방인지 노인인지 젊은이인지가 불분명한 인상이다. 입에서 입으로 영등신의 내력을 전해오는 영등굿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영등굿판의 주역이며 사제인 심방들은 영등신을 ‘영등대왕’이라고 부른다. 이와 달리 단골, 즉 신앙민들은 ‘영등할망’이라고 한다. 민속학자 진성기의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에 채록된 한림읍 한수리 영등당 본풀이 중 한 편에는 신비한 노인이며 남성인 ‘황영등’으로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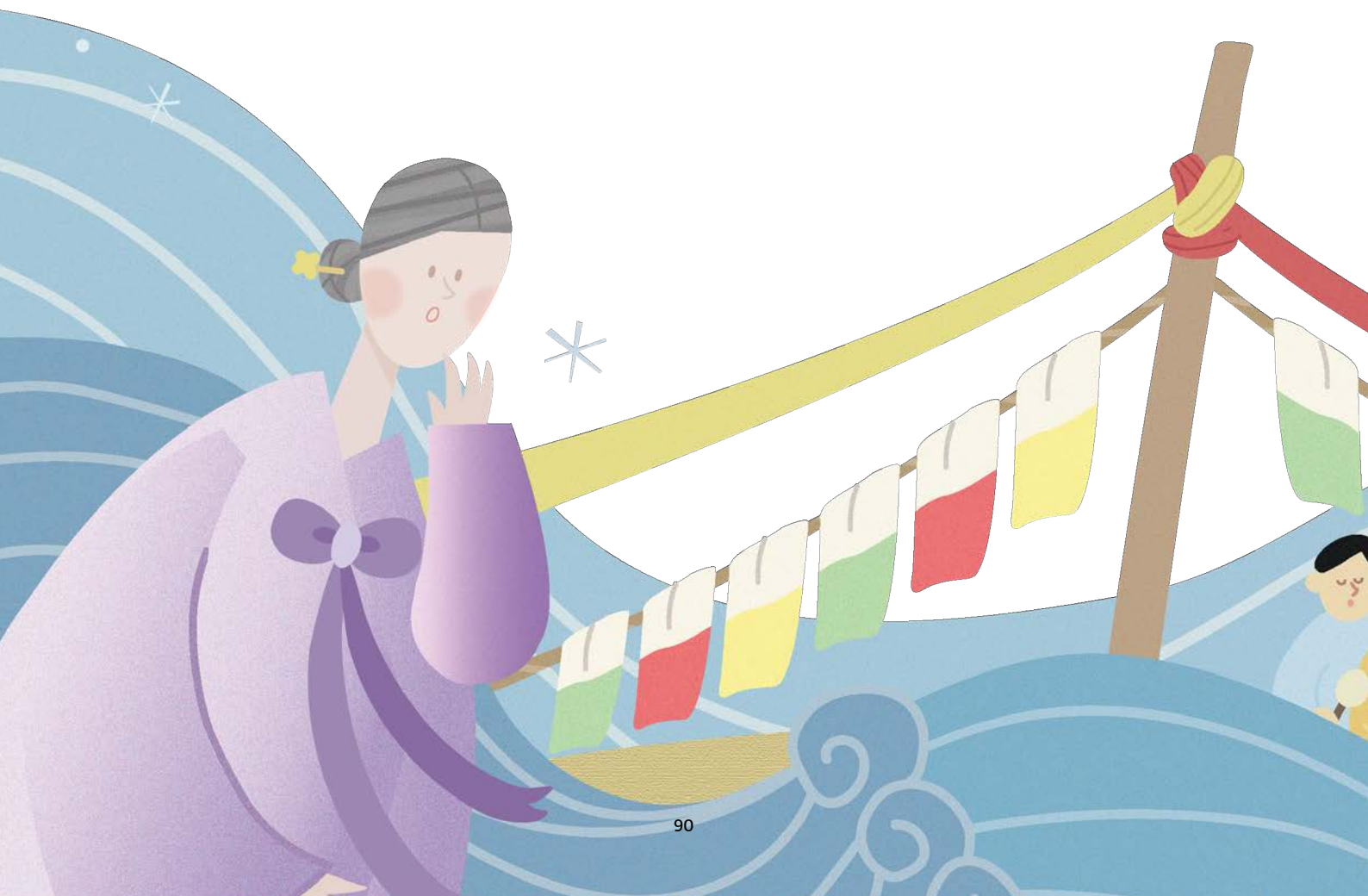
“옛날 한수리 어부들이 뱃일을 하다 풍랑을 만나 웨눈베기땅에 좌초되었다. 한 발 앞서 나타난 황영등이 웨눈베기들을 따돌린 뒤 어부들이 살아 돌아갈 방도를 알려준다. 어부들은 황영등이 가르쳐준 그대로 ‘개남보살’이라는 주문을 외며 배를 띄웠다. 황영등 덕분에 고향 바닷가에 다다른 어부들은 배가 포구에 닿기도 전에 안도한 나머지 주문을 그쳤다. 그러자 난데없이 폭풍이 불어왔고 다시 웨눈베기땅으로 순식간에 휩쓸려갔다. 이번에도 황영등이 나타나 재차 도움을 주니 어부들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황영등의 소행을 알게 된 웨눈베기들은 그를 죽여 바다에 던져버렸다. 세 토막으로 잘린 황영등의 시신은 파도에 떠밀려 제주 바다까지 다다라 머리는 우도, 팔다리는 한수리, 몸통은 성산포 바닷가로 흩어졌다고 한다. 다행히 목숨을 구한 어부들은 황영등이 했던 말을 잊지 않았다. 황영등의 유언은 해마다 2월 초하루가 되면 자신을 잊지 말고 위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뒤로 제주에서는 영등굿을 치르게 되었는데, 정월 그믐날에는 우도, 2월 초하루에는 한수리 비꼴물, 성산포에서는 2월 초닷새에 굿이 펼

쳐진다. 황영등은 한수리, 우도, 성산포에 각각 처가 있어 세
첩을 둔 신이다.”

황영등만이 아니다. 굿판의 영등신화는 워낙 구비전승으로
전해오는 탓에 지역과 사람에 따라 사뭇 다르다. 또한 놀랍게
도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집단을 이룬 다수의 신으로 나타난
다. 제주의 동부지역 영등굿판에서 심방들이 부르는 노랫말
속에는 ‘영등대왕, 영등부인, 영등아미, 영등도령, 영등별감,
영등좌수, 영등이방, 영등형방, 영등호장, 영등우장, 영등나
줄’ 등 매우 많다. 서부지역에서도 ‘영등대왕, 영등부인, 늑
이번개 삼대왕, 동정목 애기씨 신중선앙’ 등으로 부르며 다수
의 신으로 인식한다.

바람의 신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 해답은 바람 자체에 깃들
어 있다. 앞서 살펴본 수많은 바람을 의인화했기 때문이다.
어디 바람만일까. 바람과 짝을 이루는 별과 비와 눈까지 곁들
였겠지. 여기에서 제주섬이 ‘동촌(동부)과 서촌(서부)’, ‘산
압(산남)과 산두(산북)’로 나뉘어 언어와 풍습이 차이를 보
이는 전통도 한몫했다.

다시 한수리 영등당 본풀이 속으로 들어가보자. 어부들을 고
향으로 돌려 보내준 황영등은 누가 보아도 바람의 신이 분명
하다. 그렇다면 웨눈백이는 어떨까? 그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일 뿐일까? 곰곰이 따져보면 웨눈백이 또한 바람의 신이
다. 돌풍을 일으켜 한수리 어부들을 다시 자신들의 섬으로 되
돌아오게 했으니까. 황영등이 잔잔한 실바람을 일으켰다면
웨눈백이는 매서운 칼바람을 일으켰다. 이것이 바닷 바람이
지닌 양면성이다. 황영등이 순풍의 신이라면 웨눈백이는 폭
풍의 신인 셈이다. 굿과 이어진 본풀이와 달리 민간에 전승되
는 영등할망의 면모도 비슷하다. 영등할망, 딸, 며느리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신으로 함께 등장한다. 영등할망의 딸이 헛
살을 동반한 따사로운 봄바람의 신이라면 며느리는 눈보라를
일으키는 겨울바람의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주의 바
람신은 무리를 이룬 복수의 신이며 단지 바람만이 아니라 헛
살, 비, 눈을 비롯한 다양한 날씨를 조정하는 기후의 신으로
볼 수 있다.



바람을 향한 기원의 시간

이렇게 맑고 천변만화하는 바람의 주재자를 향해 제주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풍요와 번영을 기대했다.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신화에서 해마다 영등달이 오면 영등신을 위하는 곳을 펼치게 되었다는데 영등굿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 의례의 면모는 어떤지 살펴보자.

음력 이월 영등달이 다다르면 제주섬은 온통 굿판의 쇠북소리로 질펀해진다. 바다 기슭을 에둘러가며 오색 깃발이 나부낀다. 영등굿, 잠수굿, 수신굿, 풍어굿 등 바다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굿의 이름도 모습도 다채롭다. 영등달 한 달을 제주에서 지낸다는 영등신의 여정도 지역에 따라 사뭇 다르다. 제주시 일원에서는 이월 초하루에 한림읍 복덕개로 들어와서 섬을 순회한 뒤 한라산에서 봄꽃놀이를 즐기고 우도의 진질깍이란 해안가를 거쳐 바다 건너 영등땅으로 되돌아간다고 믿는다. 한림읍 일대에서는 이월 초하룻날 영등할망은 우도로, 영등하르방은 복덕개로 들어와서 한라산에서 만난다고 한다. 서귀포 서쪽 지역에서는 영등할망이 일찌감치 정월 초하루에 들어와 이월 그믐날 떠난다고 믿는다. 이렇게 마을마다 영등신들의 제주 방문기는 다르지만 자기 마을에 영등신이 온다는 날을 기해 굿판을 펼치는 것은 똑같다.

영등굿을 벌일 때는 바람의 신 영등만 대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다의 주재자인 사해 용왕과 배를 지켜준다는 선왕인 영감신, 즉 도깨비도 모신다. 농사의 신으로 숭배하는 자청비와 문도령도 썰물선관 요왕세경할마님, 들물선관 요왕세경하르바님이라는 이름을 붙여 함께 모신다. 바다 일도 농사라고 여기는 관념 때문이다. 여기에도 용왕을 보필하는 요왕스제와 요왕차사도 빼놓지 않으며 영등굿을 벌이는 본향당의 신도 당연히 모신다. 이렇게 많은 신을 모시는 마당이기에 영등굿판은 성대할 수밖에 없다. 굿과는 무관하지만, 나라의 공무를 담당하는 관청에서도 풍운뇌우제라는 유교식 의례를 만들어 기후의 안정을 빌었다고 하니 농업사회였던 옛 시절의 날씨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오늘날은 과학이 발전한 문명의 시대다. 기후를 조절하는 신을 믿는 건 하잘것없는 미신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과연 미신인가 돌이켜보자.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최첨단의 시대에 우리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연에 순응하던 옛사람들과 달리 정복하려고 기를 쓴 우리가 초래한 결과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바람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자연과의 공생을 회복할 수 있다. 🌿



갈옷

글 편집부 /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제주에서는 ‘갈옷’을 흔히 ‘갈중이’ 또는 ‘갈베중이’라고 부른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제주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했던 노동복이자 일상복으로 경조사(敬弔事)나 특별히 먼 곳을 방문할 때도 대부분 안에는 갈옷을 입은 채로 겉옷을 덧입는 경우가 많았다. 바쁜 일상에서 굳이 옷을 갈아입을 틈도 아껴야 했고, 불일이 끝나면 일터로 바로 가는 일이 흔했기 때문이다.

무명옷에 감물을 들인 갈옷을 언제부터 입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약 700여 년 전, 낚시하던 노인이 낚시줄이 자꾸 끊어지자 낚시줄에 감물을 들였더니 질기고 고기도 더 잘 잡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시대적으로는 고려시대에 해당한다. 낚시줄에 감물을 들이는 풍속은 중국 남부지방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감물 염색은 예로부터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행해져 왔다는 문헌기록 등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아주 오래전부터 갈옷이 제주사람의 일상복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갈옷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는 무명 이외에도 염색의 원료가 되는 감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늘의 도움, 즉 날씨가 품질 좋은 갈옷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제주의 감은 ‘풋감’(풋감)이라고 하는데 ‘풋’은 ‘팔’의 제주어로 여기서는 ‘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풋감은 크기가 작고(직경 3cm 내외) 씨가 많아서 식용에는 알맞지 않았지만, 감물을 들이기 위해서라도 집마다 감나무 한두 그루씩은 키웠었다.

‘갈옷바래기’ 즉, 감물 들이는 일은 일 년 중 햇볕이 가장 강한 7~8월 중에서도 날씨가 좋을 때를 택해 행해졌다. 이 시기가 감 씨가 딱딱하게 여물기 직전 이어서 풋감을 따서 뺨으면 감부스러기와 함



깨 텅텅한 액즙, ‘감물’이 생긴다. 곧바로 이것들을 옷을 뒤집어 옷 안쪽에 조금씩 넣어 즙이 옷감의 울이나 바느질한 시접 사이까지 골고루 배도록 주무른다. 다음은 옷에 묻은 ‘감 찌꺼기’를 깨끗이 털어내고 모양을 바로잡은 후, 편편한 곳에 너는데 주로 ‘멍석’을 이용했다. 별이 좋으면 반나절이면 마르는데 바짝 마르는 대로 계속 물을 적시면서 앞과 뒤를 고르게 뒤집어 낸다. 이런 과정을 약 일주일 반복하면 옷은 뽀뽀해지면서 벽돌처럼 발간색으로 변하여 갈옷이 완성된다. 이 동안에 장마가 들면 썩기도 하고, 바람에 날리면 색이나 촉감이 좋지 않아 품질이 떨어지므로 강한 직사광선과 맑은 날, 즉 하늘이 갈옷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갈옷은 처음 입으면 거친 느낌이지만, 뽀뽀하면 차츰 부드러워진다. 통기성이 뛰어나며 비나 땀에 젖어도 몸에 달라붙지 않고, 더러움도 덜 탄다. 비를 맞아 젖어도 어느새 건조되어 활동하는 데 불편함을 덜어준다. 감물을 들이면 뽀뽀하게 풀 먹인 옷처럼 되고 강도도 강하고 질겨져 가시덤불에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찢기는 일이 드물다. 보리가꼬라기 같은 오물도 쉽게 달라붙지 않고 만약 붙었다가도 털면 그만이다.

갈옷은 빛깔이 제주 흙색깔과 비슷하여 더러워져도 쉽게 눈에 띄지 않고 또 감염색으로 옷감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더러움도 덜 탄다. 옷을 입다가 헐어 후줄근해지면 다시 감물을 들여 새옷처럼 입을 수 있어서, 매일 같이 입어도 2~3년은 거뜬히 입을 수 있었다.



갈옷은 상의와 하의로 나뉘는데, 상의는 남녀 구분 없이 ‘갈적삼’이라고 불렀고, 하의 중 남자 것은 ‘갈중이’, 여자 것은 ‘갈굴중이’라고 불렀다. ‘갈굴중이’는 여성용 단속곳을 제주어로 ‘굴중이’라고 했는데, 감즙을 들여 갈색으로 변한 굴중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제주사람의 삶을 지탱해주고 한과 꿈이 서린 갈옷은 태어나면서부터 삶을 마칠 때까지 함께했던 한 몸과도 같은 것으로 그 존재감 자체로 제주인의 삶을 대표한다. 제주의 자연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에 있는 그대로 제주이기도 하다. 제주의 감(꽃감), 제주의 물, 제주의 벌에 제주인의 지혜가 하나 되어 탄생한 최고의 복식문화, 갈옷의 우수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요즘이다. 

독자설문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독자설문을 작성하여 사진 촬영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열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호 <드림제주21>에서 가장 좋았거나 아쉬웠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드림제주21>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이름

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하는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는 상품 배송 용도로만 이용되며, 목적달성 후 파기(미 당첨자 정보 포함)합니다.
(단, 미동의 시 선정대상자 제외)

📷 사각 라인에 맞춰 사진 촬영 후 이메일(redlight17@korea.kr)로 보내주세요(접수 마감 : 2021년 10월 31일)

독자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았어요



이 글은 우리의 문화와 예술의 방향성을 제주 특수성에 근거하여 간단하고 평가함으로써, 경이로울 만큼 내게 제주의 삶·문화·역사 등에 관한 문제의식을 고루시켜 주었습니다.

김혜숙 님

좋았어요



제주를 느끼다, 제주 속 제주 "살거스와 아트세넵" 기사가 좋았어요~ "제주원도심 식물지도"가 인상적이었는데, 젊은 예술가들이 만들어가는 원도심 문화에 기대가 큼니다~^^

백면미 님



내가 낸 세금,

제대로 쓰이고 있나?

부당한 행정사례 없나?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접수기간 '21. 9. 6. - 9. 23.

내 용 행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 시책사업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 불편사항 등

의견제출 도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www.council.jeu.kr
도의회 SNS, 우편, 직접 방문(해당 전문위원실)

문 의 처 도의회 공보관 ☎ 741-2204

남태



©국립민속박물관

바람에 쉽게 부서지고 날리는 화산회토 토양이 대부분인 제주에서는 밭에 뿌린 곡식의 씨앗이 바람에 날리기 일쑤여서 농사짓기가 쉽지 않았다.

그 때문에 씨앗을 밭에 뿌린 뒤에는 남태를 끌고 다니며 밭을 밟아 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했다. 동시에 덩어리가 큰 흙을 부수고 다져주기 때문에 수분의 증발을 막는 효과도 있었다.

지름 30cm, 길이 80cm쯤 되는 통나무 주위에 토막 나무발 30여 개를 촘촘하게 박아놓은 형태의 남태는 좌우 양 끝에 고리를 달고, 이에 끈을 꿰어서 소나 말이 끌기도 하고, 사람이 어깨에 메어 끌고 다니기도 했다. 나무 대신 돌로 만들어진 ‘돌태’를 사용하기도 했다.

남태를 끌며 밭을 밟을 때 불렀던 제주 고유의 일노래 ‘밧 불리는 소리’(밭 밟는 소리)는 제주무형 문화재 제16호 제주농요로 지정되어 있다.

